

CONTENTS

KOSCA LETTER Vol.8

코스카레터 제 8 호



06



07



2016년 Vol. 08

발행인 회장 김병철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CCA (051. 647. 5991)
인쇄 성광정판 (051. 261. 0027)

PART 1

1. 권두사.....04
- 박상우 _ 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 권준안 _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본부장



PART 2

2. 협회소식	06
3. SPECIAL01 - 소통하는 문화공간	14
4.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16
5. SPECIAL02 - 생활 속 TIP	22
6. 신기술 소개 - 2015년 하반기 신기술 현황	24
7. SPECIAL03 - 건강지킴이	28



PART 3

8. 전문건설인의 삶	30
• 건삶인 13호 정석봉 _ (주)공간조경 대표이사	
• 건삶인 14호 정진갑 _ 산양건설(주) 대표이사	
9. SPECIAL04 - 부산의 가볼만한 곳	34
10. 건설산업정보 - Part.1	36
11. SPECIAL05 - 이달의 경영어록	45
12. SPECIAL06 - 쉬어가는 유머	46
13. SPECIAL07 - 책으로 만나는 세상	48
14. 건설산업정보 - Part.2	50
15. 건설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54
16. SPECIAL08 -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56
17. 회원사 질의·응답	58
18. SPECIAL09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60
• 제5편 : 웨어러블 기기	
19. SPECIAL10 - 그것이 알고싶다	62

PART 4

20. 회원사 현황	64
21. SPECIAL11 - 업무단신+2/4분기 주요일정	69
22. 건설용어 바로쓰기	70
23. 민원업무 처리절차 안내	71
24.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72
25. 회원사 참여 마당	74
26. 불공정행위 신고안내	75

01

권두사 MESSAGE

“
다양한 기고활동을
통해 “코스카레터”의
발전에 함께 하겠습
니다.”

”

박 상 우

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긴 겨울을 보내고 산천이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만물이 새로 태어나는 봄이 시작되어 생기를 보이듯이, 우리 업계에도 생동감 넘치는 진정한 봄날이 어서 다가오길 바라봅니다.

건설산업은 지난 50년간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국가기간산업이자,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대표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설업의 뿌리는 우리 전문건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산업의 뿌리가 되는 전문건설기업을 튼튼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한국건설의 봄날을 위한 중점 해결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튼튼한 뿌리를 내릴 에너지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의 건설시장에서 우리 건설기업들의 주력 상품이 사업 그 자체인 수주 위주의 산업이었다면, 내재된 오랜 경험(knowhow)과 숨은 기술(unknown)을 바탕으로 세부공종, 특정 부위, 구성요소 등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분야에서 작지만 강한 기술상품을 개발하여, 상품공급 위주의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카레터”가 협회의 소식과 최신 건설정보 안내는 물론 신기술과 신공법 소개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발간됨으로써 1,700여 회원사를 비롯한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애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도 전문건설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및 비효율적인 제도와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고활동을 통해 “코스카레터”의 발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의 고향인 부산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건설업계의 성장과 회원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건설산업의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로서 전문건설업 발전을 담당해 온 코스카레터의 여덟 번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부산광역시회 김병철 회장님을 비롯한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산에 있어 건설산업은 주요 전통 제조업의 전·후방 파급산업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습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시공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 오늘날 부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면서 그 중요성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업계는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도시화 진전, 그리고 복지예산 증대로 인한 SOC 사업감소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부산지역에 대규모 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업체와의 과도한 경쟁 등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에 의한 지역건설사업의 혜택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상황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체불 방지 특별점검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고 시 자체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의 일감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 보다 나은 삶의 기반 조성을 위한 인간의 욕구가 지속되는 한 건설산업의 발전은 지속될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인들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의 발전이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 동반하는 관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산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전문건설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아낌없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와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권준안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본부장



협회 소식

❖ 제회의 및 행사

회장단 및 감사 연석 간담회

부산사회에서는 1월 5일(11:30 / 도림) 회장단 및 감사 연석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회 주요현안 및 2016회계연도 주요일정 계획(안)을 보고하였다.



2016회계연도 제1차 및 제2차 회장단 회의

부산사회에서는 1월 8일과 3월 8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제31회 정기총회 관련 주요 현안 및 2016 건설안전기원제 등 제행사 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했다.



2016년 신년인사회

부산시회는 1월 8일(11:30 / 부산전문건설회관 3층 회의실) 90여 명의 대표회원 및 협회 자문단(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6년(丙申年)에는 회원사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조적 혁신과 빠른 실행력으로 보다 나은 발전과 우리 삶에 행복과 희망의 빛을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분과위원장에 보선된 (주)성신창업 김홍수 대표이사에게 인준서 전달과 부산시회 자문변호사에게 위촉된 박종규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2016년(丙申年)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떡 케이크 커팅식을 가졌다.



인준서 전달



위촉장 수여



2016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

부산시회는 1월 13일(11:00 / 부산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운영위원 및 회원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6회계연도 제1차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심의하면서, 제31회 정기총회 개최일자, 부의사항과 정기총회 포상대상자 및 부산광역시 2015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포상후보자를 결정하였다. 또한, 협회 위상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 추진 계획 등 협회 주요 당면현안을 협의하였다.



협회 소식

제31회 정기총회

부산시회는 1월 27일(11:00 / 롯데호텔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 중앙회 신홍균 회장과 부산시의회 이해동 의장, 부산광역시 서병수 시장을 대신하여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성린 국회의원, 이현승 국회의원, 서용교 국회의원 등 내빈 30여 명과 협회 부산시회 대표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김병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무제공자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부산시회는 중앙회로부터 회원 권익증진과 업역 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우수시회로 선정되어 2년 연속 표창을 받았으며, 부산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헌한 외부인사와 회원사, 사무처 직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실시했다.

이현승
국회의원 축사



KOSCA
신홍균 중앙회장
치사(격려사)



부산광역시
2015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포상



우수시회 표창



회원사 포상



부산광역시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축사



서용교
국회의원 축사



외부기관 포상



부산광역시의회
이해동 의장 축사



〈정기총회 수상자 명단〉

▶ 부산광역시 2015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자



광평건설(주)
주 한 식
대표이사



삼지건설(주)
이 태 원
대표이사



(주)에이탑이엔지
정 진 철
대표이사



중앙건영(주)
민 환 기
대표이사



동림건설(주)
김 기 호
이사



(주)세원이엔지
정 승 익
차장

▶ 회원 공로상 수상자



소원건설(주)
최 기 향
대표이사



하진토건(주)
하 정 현
대표이사



(주)인산건설
하 진 군
대표이사



석봉건설(주)
한 상 호
대표이사



옥산건설(주)
유 재 봉
대표이사



(주)일성기업
천 상 우
대표이사



(주)일창건설
정 환 군
대표이사



녹화조경(주)
김 점 식
대표이사



(주)명륜건설
김 명 수
대표이사



(주)아이투
디자인
김 중 철
대표이사

4대 사회보험 실무자 강습회

부산시회는 2월 26일 (14:00 / 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회원사의 건설업 4대 사회보험 등 노동관계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사소속 임·직원 4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보험 실무자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산재·고용보험 확정·개산 신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윤병욱 차장이, 피보험자 관리 및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김현아 주무관이 각각 강의를 진행했으며, 건강·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신고업무에 대한 한국경제진흥원 조수호 강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한편 부산시회는 이날 강습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강습회 교육교재와 강의 동영상은 홈페이지(www.kosca21.or.kr)에 게재해 회원사들이 수시로 활용·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소식

업종별 분과위원장 회의

부산시회는 3월 17일(11:00 / 서면 골든뷰뷔페) 업종별 분과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건설안전지원제' 및 '부산전문건설인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행사 개최 관련 주요 내용 및 회원사 참여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분과회의를 통한 업종별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분과회의 개최 일정 및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2016회계연도 제1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

부산시회는 3월 31일(07:00 / 롯데호텔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과 오광석 교수를 초빙하여 '2016년 제1차 전문건설인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산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조찬세미나에서는 오광석 교수가 '창조적 도시건축문화의 실천과 확장'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주)중소기업경영지원단의 회원사 경영 지원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규제개혁 현장추진단 간담회

부산시회는 3월 17일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왕충식 단장 및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인한 회원사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이날 부산시회 김병철 회장은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로 건설공사 품질확보, 안전사고 예방, 신속한 건설공사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문공사에 대한 계약심사제도 폐지와 수의계약 공고 시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된 경우 자치구 또는 군 소재 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예규가 개정될 수 있게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하도급 허용비율을 건설공사의 특수성 및 시공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20% 이내에서 50% 이내로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부산광역시 규제개혁추진단 왕충식 단장은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권준안 본부장 간담회

부산시회는 3월 29일 부산광역시 권준안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건설관계관 등 10명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병철 회장은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전국 최다 발주 성과 달성과 제도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타 발주기관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건전한 건설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 설계변경 미반영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과 이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권준안 건설본부장은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정착과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 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부계약자 간담회

부산시회는 3월 31일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현장에 부계약자로 참여한 회원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계약자 공동도급 부계약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회의 추진현황을 안내하고 부계약자 참여업체에게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처 및 주계약자와의 원활한 협조, 건설공사의 하자발생시 책임전가 금지 및 신속 보수, 임금 및 자재·장비대금 체불금지 등 부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안내했으며, 발주기관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를 기피하지 않도록 원활한 공사 진행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박사, 홍성진 박사, 협회 중앙회 경영지원실 조선연 계약제도부장도 함께 참석하여 부계약자로 참여한 회원사의 애로사항 파악과 제도 개선방안 등을 강구했다.



협회 소식

❖ 사회공헌활동

오륜정보산업학교 축구화 지원

부산시회는 3월 23일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 김정식 교장)를 방문하여 소년원생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해 달라며 축구화 145켤레를 기부했다.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는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보호관찰하여 교화시키고 있는 법무부 소속 소년보호교육기관으로, 이 자리에서 김병철 회장은 “한순간 실수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를 전했다.

또한, “축구 등과 같은 단체운동은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동료와 상대팀을 배려하는 운동으로 승패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소년원생들이 운동을 통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휴카드의 혜택

01. 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02. 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03. 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기업은행이 만나
전문건설 발전을 위해
**더 큰 혜택을
건설하다**

IBK Card
KOSCA



힐링상영

<1관> 독수리 에디

개봉 | 2016.04.07.

감독 | 텍스터 플레처

출연 | 태런 에저튼(에디), 휴 잭맨(브론슨 피어리)

가장 응원해주고 싶은 열정 콤비, 유쾌한 두 남자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된다!

영국 스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에디(태런 에저튼)', 그는 동계 올림픽 출전에 대한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스키 점프'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웃음과 상처뿐이다.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 한 채 무작정 독일의 스키 점프 훈련장으로 떠난 그는 그곳에서 반항적인 성격으로 미국 국가대표 선수에서 퇴출당한 천재 스키 점프 선수 '브론슨(휴 잭맨)'을 우연히 만난다. 자신의 코치가 되어 달려며 막무가내인 '에디'이지만, '브론슨'도 그의 열정 앞에서 무너진다. 과연 그들은 편견과 비웃음을 뛰어넘고, 그들만의 꿈을 이뤄낼 수 있을까?

가장 응원해주고 싶은 열정 콤비 유쾌한 두 남자의 특별한 훈련이 시작된다!



<2관> 귀향

개봉 | 2016.02.24.

감독 | 조정래

출연 | 강하나(정민), 최리(은경), 손숙(영옥(영희))

일본군 '위안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슴 아픈 이야기! 영화 귀향의 비하인드 스토리

01. 주인공 정민 역의 배우 강하나는 재일교포 4세이고, 이 영화에는 총 5명의 재일 교포가 출연했다.
02. 일본군 류스케 역을 맡았던 임성철은 백범 김구 선생의 외종손이다.
03.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스태프는 무임금의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배우 손숙은 노개런티로 출연했으며, 러닝 개런티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
04. 조정래 감독은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을 모티브로 삼았다.



힐링캠프

아침고요수목원 봄나들이 봄꽃축제

2016.04.16. ~ 2016.05.31.

경기도 가평군 상면 수목원로 432(상면)

봄이면 꽃을 주제로 한 수많은 전시회가 열리지만, 아침고요의 봄꽃 축제만큼 특별한 아름다움을 가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청정한 잣나무 숲 아래로 난 자연스러운 산책길과 각종 꽃나무로 가득한 10만여 평의 아름다운 화단까지 구석구석이 자연의 화려함으로 가득하다. 수많은 화려한 꽃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고,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 행사와 문화행사가 관람객을 봄의 절정으로 안내한다.



2016 태안 세계튤립축제

2016.04.16. ~ 2016.05.08.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168-3번지 일원, 네이처월드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서 개최된 '2015 세계튤립대표자회의 WTS(World Tulip Summit)'가 태안튤립축제를 미국, 캐나다, 일본, 인도와 함께 세계 5대 튤립축제로 선정하였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선보이지 못한 이중식재 기법과 눈을 땔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디자인 연출력이 큰 점수를 얻은 이유에서였다. 오는 2016 태안튤립축제는 '화가들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대지 위에 모나리자와 마블린먼로가 튤립으로 펼쳐지며 일몰 후에는 LED로 형상화되어 색다른 묘미를 볼 수 있다.

합천 황매산철쭉제

2016.05.01. ~ 2016.05.22.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로(가회면)

하늘과 맞닿을 듯 드넓은 진분홍빛 산상화원이 매년 5월이면 황매산에 펼쳐진다. 황매산에 펼쳐진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군락지는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자연 그대로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다. 철쭉군락지인 정상 바로 아래는 과거 목장을 조성했던 평원으로 구릉진 초원이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내며, 황량한 겨울을 이겨낸 초목과 붉은 꽃의 조화가 끝없이 펼쳐진 모습이야말로 황매산 철쭉 산행의 백미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016년 부산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공사 발주계획 안내

부산시회는 1월 21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2016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안내하여 회원사에서 건설공사 수주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년도 공공공사 발주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발주기관	발주건수	공사예정금액	비고
1	부산광역시	41건	89,308	
2	부산광역시 산하 사업소	262건	191,342	
3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34건	11,083	
4	부산광역시 구·군청	477건	150,707	
5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등)	222건	215,840	
6	부산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55건	140,205	
계		1,491건	798,485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건설공사정보 ⇒ 발주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 부산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 및 사하구 소재 전문건설업체 현황 통보

부산시회는 1월 2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중 2015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30% 이내인 우수 전문건설업체 현황과 사하구 소재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안내하고,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적용 협조

부산시회는 조경식재공사의 특성상 하자구분 곤란, 유리관리비용 미반영 등 조경식재공사업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상정 안건으로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부산광역시는 부산시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8월 21일 부산광역시 산하 구(군)청 및 관계기관에 문서를 시달하고 동 방안을 적용토록 했다.

○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 주요내용

- 적용대상 : 식재공사비 1억 원(직접공사비 기준) 이상
- 예산편성 : 市 주관부서(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수목유지관리 부서)
- 예산규모 : 총 식재공사비의 5% 이내(2년간)
- 공사기간 :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2년간(하자보수 기간)
- 시행방법 : 본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공사 별도 발주·시행
- ※ 하자책임 일원화를 위해 본공사 시공업체와 수의계약 조치
(수의계약 범위 초과 시 공개입찰)
- 적용시기 : 2016년도 준공예정 공사부터 적용

이에 부산시회는 1월 22일 부산지역 주요발주기관 40곳을 대상으로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2년) 내 유지관리는 본 공사 시공업체와 유지관리공사를 별도 계약·시행하여 원활한 수목 관리 및 하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경식재공사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방화문 제작용체의 납품거부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부산시회는 최근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회원사들로부터 '전국의 방화문 제작 업체들이 납품을 거부함으로써 원도급사로부터 지체상금을 물거나 계약해지·해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2월 1일 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해 4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안전과 방화문에 대한 소비자 불신 해소를 위해 기존 방화문에 30분 이상 차열성능을 추가하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금년 4월 7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강화된 방화문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방화문 제조업체들은 기존 한국산업규격(KS)으로 인정받은 방화문도 성능검사시 비차열 60분 이상에 미치지 못해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그 책임을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체에게 전가하기 위한 각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에 제작된 방화문도 납품을 거부하고 있다.

부산시회는 해당 사안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중앙회 차원에서 방화문의 원활한 공급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2016년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부산시회는 2월 11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 127개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공공공사 시행계획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종합공사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 건의는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근절시켜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고 회원사의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것이다.

❖ 부산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홍보

전국 상위 100위 종합건설업체에 홍보

부산시회는 2월 11일 전국 상위 100위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홍보했다.

부산시회에서는 그동안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광역시의회 등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

그 결과, 2015년 10월 14일에 부산지역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이 70% 이상이면 용적률 2%, 80% 이상이면 용적률 3%를 추가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시키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상기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속 회원사가 부산지역 대형 민간건설공사현장에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용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국 상위 100위 종합건설업체에게 동 제도를 적극 홍보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부산시회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을 대상으로도 동 인센티브 제도의 홍보에 박차를 가하여 회원사의 일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부산 전문건설업체 하도급참여 확대 건의

한국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시공사에 건의

부산시회는 2월 15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1공구 조성공사」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5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광역시청, 시공사인 계룡건설(주) 외 4개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부산시회에서는 실질적인 부산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가 확대되어, 건설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건설자재 생산업체 및 건설장비 임대업체의 동반성장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은 에코델타시티 1단계 2공구 33%, 3공구 0%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50% 이상 하도급 참여를 권장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부산시회에서는 동 조성공사가 향후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주축이 될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동 조성공사 현장에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에 하도급 전담반의 구성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회원사의 일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전문공사를 종합공사로 부당 발주하는 사례 근절 건의

부산시회는 2월 24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 127개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업종별 업무영역을 준수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일부 발주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전문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예정금액이 7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산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토록 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로 부당 발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단일 전문공사는 반드시 전문건설업체로 발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영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의 시정을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하수관거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발주 건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업역준수를...

부산시회는 3월 15일 부산지역 47개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하수·우수관 부설 및 세척·갱생 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성토, 가시설, 포장공사 등은 부대공사에 해당되므로 공사 발주 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사금액이 크고,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상기 공사를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으로 발주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부당발주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것이다.

❖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공사 발주 건의

부산시회는 3월 15일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일부 발주기관에서 2종 이상의 단순한 전문공사가 복합되거나, 특허·신기술 반영, 기존의 발주관행 등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지역 주요 발주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최초 시공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였으나 하자보수기간 종료 이후라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몰아주기식 발주를 하고, 공사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2종 이상 전문공사의 복합을 이유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공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며,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특허·신기술은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의 방법으로써 건설업의 업무영역이 될 수 없으며,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공사로 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하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해당 전문건설업자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규제이므로 향후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 내용에 맞는 해당 전문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대상(광역시 안의 구·군) 제한 개선 건의

부산시회는 4월 4일 건설공사를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으로 견적제출 공고 시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 소재업체 또는 자치구를 제외한 군 소재업체만으로 견적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회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회는 이미 수차례 해당 발주기관에 부당발주사례 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억 원 이하의 전문공사를 관내 업체에게 도급주기 위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악용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위반하면서까지 종합공사로 부당 발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해당 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업체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위반하여 발주함으로써, 건설업종 간 업역분쟁과 건설부조리 행위 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의 개선을 건의한 것이다.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속 TIP 3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꿀팁1 노란 고무줄 활용법

사무실이나 집 여기저기에 굴러다니는 고무줄도 알고 보면 무척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탕병이나 꿀병 등 단 것이 담긴 통의 아랫부분에 노란 고무줄을 묶어 놓으면 개미가 타고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침구를 청소할 때는 다 쓴 휴지심에 고무줄 몇 개를 띄엄띄엄 감아서 문지르면 머리카락이 금세 모입니다. 병이 열리지 않을 때도 뚜껑에 고무줄을 몇 번 감아서 마찰력을 증가시키면 쉽게 열립니다. 특히, 비누 보관통 양쪽에 고무줄을 하나씩 감아두면 비누가 물에 닿아 물러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꿀팁2 전자레인지 활용법

보통 음식을 데우는 용도로만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자레인지는 조리시간도 줄여주고 식품의 모양과 색을 그대로 살려 조리해주는 편리한 조리기구입니다. 오래된 빵을 촉촉하게 하려면 젖은 키친타올로 빵을 감싸고 전자레인지에 10초씩 돌려주세요. 콩나물이나 시금치를 데칠 때도 씻은 채소를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담고 1분 정도 가열해주면 손쉬운 방법으로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을 구울 때도 접시 위에 김을 5장 정도 올린 후 1분 정도 가열하면 바삭바삭하게 구울 수 있습니다.



꿀팁3 효과적인 주유방법

주유방법만으로도 기름값은 절약하고 차도 오래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미리미리 주유하세요. 주유노금이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 주유하면 연료가 탱크 바닥에 부딪히며 산화하기 때문에 연료가 조금씩 날아가게 됩니다. **둘째**, 주유는 아침에 하세요. 온도가 낮으면 휘발유의 밀도가 올라가 팽창하게 되므로 다소 온도가 낮은 아침에 주유하면 비교적 경제적입니다. **셋째**, 주유소 기름공급 시간은 피하세요. 저장탱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는 저장탱크의 휘발유가 섞이면서 바닥에 있던 침전물이 올라와 함께 주유될 수 있습니다.



Landscape & Garden Show
BUSAN 2016



2016 부산 조경·정원박람회

Landscape & Garden Show **BUSAN 2016**

2016. 6. 23(목) - 26(일)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부산방송 대표방송 **KNN**

주관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bexco**

후원 (사)한국조경사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한국공원시설협회

(사)농이시설-조경자재협회 대안주택관리사업회 부산시회

신기술 소개

2015년 하반기 신기술 지정현황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767 (2015.06.22.)	서울특별시, 현대건설(주)	숏크리트 유량연동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을 이용한 숏크리트 공법	숏크리트 타설 시 공급되는 콘크리트 유량에 연동하여 분말형 급결제가 투입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피스톤 펌프의 1회 반복 시의 콘크리트 유량에 맞추어 일정한 비율로 급결제 분사량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분말형 급결제 자동제어 분사시스템과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기강도 증진용 첨가물을 포함한 분말형 시멘트광물계 급결제의 사용을 통해 현장 일반 골재를 사용하면서도 조기강도가 발현되어 숏크리트 강도기준을 충족시키는 숏크리트 공법이다. 이 신기술은 리바운드 저감, 내구성 증진 및 경제성 향상의 장점이 있다.
768 (2015.07.03.)	장일영, 대보건설(주), 두산건설(주), (주)동명기술공 단종합건축사 사무소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 강공법(Disk Connector공법)	원형체결판과 방사상으로 조립된 L자형 철근을 이용한 강관말뚝 머리보강 공법으로, 작업공정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원형체결판을 활용하여 급속시공을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용접, 볼트 조립 등의 복잡한 설치공정을 배제하고 가공된 철근을 삽입하는 손쉽고 시공이 빠른 공법이다.
769 (2015.07.07.)	(주)한림이앤씨 건축사사무소	접이식 선단확장장치를 이용한 PHC 말뚝 선단확장 SIP 공법 (v-SIP 공법)	말뚝 설치 위치에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면서 천공한 후, 반월형의 접이식 선단확장 및 유도장치를 장착한 PHC 말뚝을 선천공 홀 저면에 삽입하여 압입 또는 항타하면 선단 확장판이 확장되고, 말뚝 선단부가 천공홀의 중앙부로 유도 설치되어 선단 지지력이 증가하고, 주면 마찰력 저하가 방지되는 선단 가변형 SIP 공법이다.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770 (2015.07.08.)	한국기술교육대 학교산학협력단, 현대엔지니어링 (주)	천장보 브래킷을 이용하여 단 위 유닛 상호간을 연결플레이 트와 고력볼트로 접합한 철골 모멘트골조 모듈러 공법	단위 유닛은 기둥, 바닥보, 천장보로 구성되는 3차원 철골 모 멘트골조 형식으로, 단위 유닛의 천장보는 양단부 브래킷과 핀 접합 중앙부 보로서 2개의 단면으로 구성되고, 바닥보 단부와 천장 단부 브래킷은 스티프너로 보강되어, 단위 유닛 상호 간 이 수평 및 수직 연결플레이트와 고력볼트로 접합된 철골 모 멘트골조 모듈러 공법이다.
771 (2015.07.14.)	(주)로보프린트, (주)동우이앤씨 건축사무소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	원격제어가 가능한 도장로봇을 이용한 건축물 도장공법으로 대형이미지 실사도장이가능하고, 비정형 구조물에도 도장 가 능한 건축물 도장공법이다. 이미지를 편집하는 편집스테이션, 지정된 이미지를 그리기 위하여 벽면에 도료를 분사하는 프린 팅스테이션, 도장로봇을 지정된 시공위치에 양중·고정하는 양중스테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772 (2015.07.14.)	(주)지지케이	칭 :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 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	지열우물공 내에서 공급 및 환수공간을 분리하는 내부케이 싱 기능을 기존기술의 공급관기능에서 환수관기능으로 전환 된 지온구배순응형 열교환 방식 적용으로 지하수 순환공간 용적확장 비수직굴착 지열우물공 굴곡구간에서의 내부케이 싱 삽입저항, 변형, 파손 등의 위험에 대해 안정성을 보강한 코일형 HDPE 및 비소켓 열융착 배관 방식 적용 지열우물공 의 동결심도 이하에서 쌍방향 결속게이트에 의해 공급관 및 환수관이 일체화되고 인양고리(hook)와 인력 탈부착 장비가 용이한 유량계가 내장된 밀폐식 상부보호공 구조이다.
773 (2015.07.14.)	(주)엔엘에스, 현대산업개발(주), 한신공영(주)	픽셀형 반사경을 이용한 태양 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 스템	1차반사경, 2차반사경 및 구동 컨트롤러를 포함하고, 타원형 (1:√2) 1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써 상방에 위치한 다수의 픽셀 형 2차반사경에 햇빛을 전달함에 있어 일출부터 일몰까지 햇 빛의 누락이 없으며, 픽셀의 크기와 주사거리에 따른 햇빛의 확산 특성 관계함수를 적용한 픽셀형 2차반사경을 사용함으로 써 사생활 침해가 없고, 다수의 채광목표 선정이 가능하며, 햇 빛의 분산 또는 집중을 설정하여 채광면에 대한 조도설계가 가 능하고, 자유로운 방향설정을 통해 일조권침해(건물의 전면) 및 영구음영(건물의 후면) 영역에 대한 채광이 가능한 태양추적 방식의 일조공간 제어시스템이다.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774 (2015.07.16.)	(주)건화, (주)이산, 롯데건설(주), 대우조선해양 건설(주), (주)지 승건설터트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BIB거더공법)	거더 양측 단부에 돌출된 벽체를 갖는 단부격벽 일체형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 거더를 제작 거치하고, 거더의 단부격벽 사이에 무수축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키는 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를 사용한 반일체식 교량 공법으로, 교대 배면에 무다짐 뒤채움 시 공과 포장부에 신축조절장치(CCJ)를 설치하는 기술이다.
775 (2015.08.27.)	(주)흥익기술단, 문희정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	신기술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을 설치하고 전면 블록의 배면 홈에 T형 연결판을 끼우고 여기에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함으로써 전면 블록 설치 공정과 보강재 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연속시공이 가능한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이다.
776 (2015.09.22.)	청진건설(주), 금호산업(주),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을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의 변단면 슬립폼 공법	BIM을 이용한 설계 및 제작, GFRP 거푸집, 초음파 이용 슬립폼 최적기 상승시스템, 전동스핀들, GPS와 정밀센서를 활용한 시공정밀도 및 형상관리시스템 등을 구비한 신형식 슬립폼 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타워, 주탑, 교각 구조물을 시공하는 변단면 슬립폼 공법이다.

지정번호(지정일자)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777 (2015.11.03.)	(주)태산파우텍	에멀전계 재생첨가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전계 재생첨가제 및 페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를 비가열식으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으로써,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에멀전계 재생첨가제 및 페아스팔트 순환골재와 신규골재를 비가열식으로 혼합한 도로기층용 상온 재생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공법이다.
778 (2015.11.16.)	(주)광장VDS, (주)원하이텍,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에스에이치공사	T형 데크플레이트와 발포폴리스틸렌 경량중공재를 이용한 중공슬래브 공법	일방향과 이방향 슬래브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중공슬래브 공법으로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으로써, T형 데크플레이트에 슬래브 하부철근을 배근 후 경량중공재(발포폴리스틸렌 재질)와 고정장치(일방향 : 발포폴리스틸렌 고정키, 이방향 : T바+앵글)를 설치하고, 슬래브 상부철근을 배근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경량슬래브 구조체를 형성하는 중공슬래브 공법이다.
779 (2015.12.07.)	(주)트라이포드, (주)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주), 롯데건설(주)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수지 및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 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 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이다.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 현황(건설신기술)

봄 맞이 피부관리 방법

피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봄을 맞은 산과 들이形形色색의 빛깔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따뜻한 햇살에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가. 이럴 때 피부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우리 피부는 자외선과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피부 만들기는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피부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자.

Q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

A 햇빛이 짙은 날에만 자외선이 높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오산이다.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존재한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는 날씨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적정량을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 지수에 따라 사용량과 용법을 달리해주면 된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 나뉘는 자외선 A와 B 중 긴 파장으로 우리 피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 A는 표피를 지나 진피 깊숙이까지 침투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피부 속 멜라닌 생성이 촉진되어 잡티가 생기고 주름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된다. 꾸준히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기미나 주근깨 등 얼굴의 색소 침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단, 개봉 후 1년이 지난 자외선차단제는 성능이 떨어지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Q 미스트는 피부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

A 환절기의 건조한 날씨에 미스트는 필수품처럼 자리잡았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미스트를 사용할 경우 피부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길 수 있다. 보통 피부에 건조함을 느낄 때 미스트를 뿌린 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스트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려면 분사 후 입자들이 잘 흡수되도록 잘 두드려줘야 한다. 만약 미스트를 뿌린 후 그대로 둔다면 입자가 증발되면서 원래 피부에 있던 수분까지 빼앗길 수 있다. 미스트를 사용할 때는 얼굴에서 30cm 정도 떨어뜨려 분사한 후, 가볍게 두드려 흡수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Q 비듬이 심할 때 샴푸를 사용하면 증상이 악화된다?

A 비듬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지루성두피염이다. 지루성두피염이 두피에 발생한 것이 지루성두피염인데 유전,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이 그 원인이다. 이에 따라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 두피에 일어난 각질, 즉 비듬인 것이다. 그러므로 두피에 일어난 비듬을 샴푸로만 해결하기는 어렵다. 평소에 머리를 감을 때 기름기가 충분히 제거될 때까지 거품을 풍성하게 내어 꼼꼼히 문지른 후, 깨끗하게 헹궈주는 방법이 최선이다. 두피를 문지를 때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Q 때를 밀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A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때를 밀어서 피부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불필요한 행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때'는 피부 각질의 죽은 세포, 공기 중의 더러운 물질, 땀과 피지 등의 분비물이 섞여 피부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샤워만으로도 충분히 제거될 수 있으며, 지나치게 제거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각질층을 지나치게 제거하면 피부의 영양분이 손실되고 정상 피부조직도 뜯겨나갈 위험이 있다. 심하게는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때를 밀 후 피부는 보호막이 없어지고, 피부세포는 진피층을 보호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두꺼운 각질층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때를 밀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매끈하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각질층이 늘어나게 된다.

Q 민감성 피부는 유아용 화장품을 사용해야 한다?

A 민감성 피부일수록 자신의 피부 유형에 맞는 성인용 화장품을 사용해야 한다. 유아의 피부는 매우 연약하므로 유아용 화장품도 순할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쉽다. 물론 방부제를 비롯한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것은 맞지만, 유분이 풍부하고 성인의 피부에 꼭 필요한 성분 중 빠진 것이 많으므로 피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음주나 흡연, 상대적으로 실외활동 시간이 많은 남성의 경우 피부 건조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피부에 맞는 화장품 바르지 않고 방치하면 피부 노화가 촉진될 수 있다.





(주)공간조경

대표이사 정석봉

조경업의 푸른 미래를 이끌어가는 선구자

글로벌 환경위기를 논할 때 흔히들 ‘삶의 개구리’ 현상을 들먹인다. 비커 속에서 가열되는 줄도 모르고 유유히 헤엄치다 결국 삶겨 죽는 어리석은 녀석 말이다. 인류도 마찬가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때까지 ‘나 모르쇠’ 하다가 멸종 신세를 면치 못할 거란 경고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정석봉(61) (주)공간조경 대표는 정공법 대응을 강조한다. 경관건축으로도 불리는 조경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거다. 도시숲과 녹지 확충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의 체온을 내리고, 신선한 공기를 내뿜는 건 기본. 나아가 ‘삶의 질(Quality of Life)’ 과 쾌적성이라는 측면에서 ‘녹지 복지’를 실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조경을 통해 부산을 장소성(Sense of Place)이 풍부한 생태녹지도시로 탈바꿈시켜야 역동성을 갖춘 선진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문건설업에 조경 부문이 포함된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 대표는 지역조경을 이끄는 선구자적 위치에 있다. 영남대 조경학과 졸업생(1980년)이라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당시 고향인 부산에 공장 내려왔지만 관련 직장이 아예 없어 개인 사업으로 출발했을 정도. 이후 88올림픽 때 전성기를 맞으면서 지금은 부산에 전문건설업으로 등록된 조경 업체만 180곳 이상 생겼으니 장족의 발전을 한 셈.

그는 조경인이 된 걸 무척 뿌듯해 한다. **“나무 화초들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적, 정서적으로 이처럼 멋진 직업이 있을까요. 계절 변화를 다루는 건 또 어떻습니까.”** 자부심이 가득한 그의 말이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처음에는 수익이 많이 남는 듯 보이나 하자 보수를 하고 나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일쑤란다. 최소 2년을 관리해줘야 하는데 봄, 가을마다 손을 봐야 하는 게 여간 고역이 아니다. 더구나 하자율이 10% 이상 나오면 출혈을 각오해야 한다. 여기다 노임은 오르고 생산성은 떨어 지니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하지만 정 대표는 조경업의 미래를 밝게 본다. 앞으로 선진도시가 삶의 질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가 오리라 믿기 때문이다. 생활 속의 그린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시대가 됐다. 이른바 녹색 성장으로 대변되는 ‘그린노믹스’ 물결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정 대표는 부산에 녹색물결이 밀어닥치기를 바란다. 카르페 디엠(그것도 바로 지금)! 시민공원을 비롯해 녹지축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뉴욕의 센터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 같은 웅장하고도 멋진 도시의 허파가 있어야 합니다. 또 쉼터와 자투리 공원 등 소규모 녹지공간도 많이 조성해야 하고요.” 그는 서부산의 에코델타시티를 주목한다. 부산 녹지의 질이 여기서 결정된다고 보고 야외 수목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승부수를 걸 작정이다.

“Green is green”이란 말이 있다. 앞의 그린은 녹지, 환경이요, 뒤의 그린은 달러의 녹색을 뜻한다. 녹지복지가 곧 경제 성장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글. 언론인 최원열





산양건설(주)

대표이사 정진갑

과욕을 경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건설인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비. 내가 적선한 돈(?)이 새 주인을 만나서 좋고, 상대방도 그 돈이 절실하니 이보다 완벽한 재활용이 어디 있을까.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삶이 즐거워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나누려면 욕심은 금물. 소유욕을 버려야 한다. 그게 전제조건이다.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고수가 되어야 '곱셈'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정진갑(66) 산양건설(주) 대표이사 얼굴을 보면 나눔의 인상이 느껴진다. 독기가 없다. 마음씨 좋은 동네 할아버지를 연상케 한다. 상대방의 마음이 편해지는 건 당연지사.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연륜이 얼굴에 새겨졌다. 1976년 건설업에 뛰어들었으니 어언 40년째. 건설인 나이로 불혹이다. 지역 업계에서 원로급이지만 그런 티가 조금도 나지 않는다.

그는 과거 부산 건설을 이끌었던 자유건설의 기획실장 출신이다.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 임원 자리에 올랐지만 성에 차지 않아 1989년 독립했다. 그때만 해도 혈기가 들끓던 시절이었다. 성공을 향한 집념도 엄청났다. 돈이 모자라 지인들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회사를 차릴 수 있었다. 회사 이름도 작명소를 마다하고 고향인 경남 통영의 산양면에서 따왔다.

“항상 과욕을 경계하고 내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음 할인은 했을지언정 은행 차입만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 만큼은 철두철미했다. 작은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력을 기르면서, 기술적 노력에 힘 쏟다 보니 산양건설의 명성을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었다. 1980년대 장승포 거제수협 냉동공장 공사 일화 한 대목, 고층 공사여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당시 자재가 잘 나오지 않았던 데다 주먹구구식으로 받침대를 설치하다 보니 인명 사고가 나기 다반사였다. 결연한 각오를 다진 정 대표가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목숨을 걸었지요. 내려와선 기진맥진했습니다. 당시 제가 현장 점검을 해서 보수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참사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후 ‘동바리(받침대)’를 절대 아끼지 말라는 원칙이 그의 사업장에서 철저히 지켜졌다고.

다시 나눔으로 돌아가서 그에겐 기부에 더욱 애착을 갖게 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 어렵게 성장한 그가 힘든 이웃을 돕는 건 하등 이상할 게 없다. 매년 명절 때면 동사무소에 쌀을 기부하고, 구청에도 거액을 흔쾌히 희사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4년 전 장학회를 세워 사재 5억 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3,000만 원에 이어 올해 4,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 앞으로 계속 적립해 나갈 생각이다. 지원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을 밝히던 정 대표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진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생전 실천했던 봉사의 의미를 확고히 하겠다는 뜻이란다.

“아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 녀석이 ‘아버지, 참 잘하십니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욕심을 멀리하되, 열심히 도우며 사는 그의 삶이 참으로 부러워진다.

글. 언론인 최원열



부산의 명소 황령산 일대

●● 황령산

금정산과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꼽히는 황령산은 높이가 427m, 부산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를 접하고 있는 산이다. 황령산은 동래가 신라에 정복되기 이전에 동래지방에 있었던 거칠산국에서 온 산 이름으로 보고 있다. 거칠산국에 있는 산이라서 '거칠되'라 했던 것이 한자화 하는 과정에서 '황(荒)', 고개 '령(嶺)'의 황령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1422년, 조선 세종 7년에는 군사상 중요한 통신수단인 봉수대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봉수대는 동쪽으로 해운대의 간비오산 봉수대, 서쪽으로 구봉 봉수대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북쪽으로는 범어사·계명산봉수대 등과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봉수대는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로 신호를 보내던 군사시설이다. 모두 다섯 개의 봉수대가 있어 위급한 정도에 따라 신호를 보내는데 임진왜란 때 부산포에 침입한 왜군을 발견하고 알린 곳도 이곳이다.

황령산은 레포츠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즐기고 올라 황령산 봉수대에서 바라보는 해안전경(광안리 등)과 도심전경이 일품이며, 천연기념물 제267호인 구상반려암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봉수대에서 바라보는 야경이 아름다워 가족, 연인들이 즐겨 찾는 드라이브 코스로 부산 광안리 불꽃 축제 관망 장소로도 널리 찾고 있는 곳이다.

●● 황령산 벚꽃길

황령산 벚꽃길은 2002년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 개최지 선정을 기념하고 400만 부산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식수 헌금으로 1996년 4월 왕벚나무를 심었던 것을 시작으로 만들어졌으며, 황령산 정상을 가로지르는 황령산 순환도로 왕복 약 7km 일대에 조성되어 있다.

또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에서는 창립 30주년 및 벚꽃길 조성 2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4월에 왕벚나무를 추가로 식재 및 보식할 계획이다.



황령산 야경

황령산 벚꽃길은 물만골로라고도 한다. 황령산은 금정산과 더불어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으로 꼽히는데,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에 걸쳐 있으면서 금련산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다. 산꼭대기는 비교적 평탄하며 소규모의 성채와 경관을 나타내는 기반암이 노출되어 있고, 북동쪽으로 금련산과 연결되어 있다. 산 정상에는 통신탑이 있고 부산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밤에는 시내 야경을 감상하러 온 사람들이 많다.

특히 황령산 벚꽃길은 도심 속 벚꽃길로 유명하다. 황령산 봉수대 부근 진달래 군락지가 운치를 더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내는 곳이며 천체를 관측하기에도 좋다. 황령산 벚꽃길을 찾아가려면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 2번 출구에서 마을버스 연제구 1호로 환승하여 물만골 종점에서 하차한 뒤, 10분 정도 걸으면 된다. 연제구에서 수영구로 황령산 순환 도로가 이어져 있어 야간에 승용차를 이용하여 드라이브를 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주변에는 황령산 레포츠 공원, 황령산 길, 황령산 봉수대, KNN 황령산 송신소, 전포 돌산 공원, 우룡산 공원, 부산광역시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마하사(摩訶寺) 등이 있다.

●● 황령산 레포츠공원

전포동 황령산 기슭에 위치한 레포츠공원은 대운동장, 소운동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모험놀이시설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가족·직장단위의 체력증진 공간활용과 학생들의 현장학습 체험장소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조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위치하고 있다.



황령산 레포츠공원

●● 황령산 야경

빠어난 조망을 자랑하는 황령산은 부산의 야경을 즐기며 걷는 야간산행 코스로 유명하다. 도심 속 건물들의 반짝이는 불빛에 바다 위 광안대교의 늘씬한 조명까지 더해져 부산을 찾는 관광객의 '필수 관광코스'로도 여겨진다. 경부고속도로를 빠져나와 해운대 방향으로 가다 KBS부산방송총국을 200m쯤 지나면 왼쪽으로 '스노 캐슬'로 오르는 길과 만난다. 황령산 봉수대로 향하는 드라이브 코스가 시작되는 곳이다.

산 중턱에 마련된 전망대에 서면 해운대 등 부산 시내와 주변 바다가 한눈에 담겨진다. 내륙을 휘돌아 거침없이 달려온 불빛이 바다와 부딪치며 화려한 불꽃으로 솟구쳐 오르는 듯하다. 정상을 향해 오르다 KT중계소 앞 언덕에 서면 황령산이 안배한 또 다른 야경이 시작된다. 신선대 부두 등 항구 불빛과 멀리 오륙도 등대불빛이 봄날 아지랑이처럼 깜빡거리며 밤의 서정을 더해준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 부산광역시 문화관광

개정세법 주요내용 안내

부산시회는 1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관련 개정세법 주요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세법 주요 내용

- | | |
|--|--|
| <p>1.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 청년 정규직 증가인원 당 500만원 세액공제(2015년~2017년)</p> <p>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현행) 50% → (개정) 70% (* 2018년까지)</p> <p>3. 2018년까지 중소기업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p> | <p>4.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법인·소득세 50%) 2018년까지 일몰 연장</p> <p>5.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2018년까지 일몰연장</p> <p>※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p> |
|--|--|

공동주택 하자 판정기준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해 12월 17일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전부 개정·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하자 판정기준 개선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51호】

- | | |
|---|---|
| <p>1. 하자판정 기준
○ 하자여부 판정 시 사용검사를 받은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외장 마감재 품질은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때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다만, 사업자가 내외장재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에 따름.</p> <p>2.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 하자심사·하자분쟁조정 시 설계도서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택공급계약서, 견본주택, 계약자 배포용 분양 책자, 특별시방서, 설계도면, 일반·표준시방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심사.</p> <p>※ 설계도서 간 내용이 불분명하면 규격, 재료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도면을 적용</p> | <p>3. 시행일자 : 2015. 12. 17.(목)부터</p> <p>※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p> |
|---|---|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유지관리비용 부담 주체 및 불가항력 사유 구체화 등 조경식재 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정 주요 내용

1. 주요내용

- 계약 중의 금지행위 구체화(제7조)
 - 부당위탁 취소, 인수거부 및 지연, 부당반품, 경영간섭,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금지
- 지급자재 등 인도거절 권한 부여(제15조)
 - 부적합 지급자재에 대해 인도거절 및 재검사 요청권한 부여
- 유지관리 주체 명확화(제29조)
 - 식재 후, 기성검사가 완료된 목적물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부여, 유지관리업무 위탁 시 유지관리비용은 하도급대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 손해배상 부담 주체 구체화(제30조)
 - 목적물(기성부분) 지연인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 부담
- 지체일수 불산입 사유 확대(제31조)
 - 조경식재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한해, 염해, 이상고온, 기상이변 등의 불가항력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 공사중지 권한 확대(제32조)
 - 지급자재 또는 대여품 등의 지급 지연 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중지 권한 부여
 - ※ 기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선급금, 기성금 미지급 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공사 중지 요청 권한 부여

- 하자담보책임 면책 규정 확대 및 입증책임 주체 신설(제35조)
 - 하자담보책임 면책 사유 신설
 - 지급자재, 식재기반 등의 불량 또는 기준 미달인 경우
 -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사용자)의 유지관리 행위가 결여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재난 및 기타 불가항력인 경우
 - 유지관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하자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사업자에게 부여
- 하자담보책임 기간 기산일 명확화(제36조)
 - 식재 완료 후, 사용승인 받은 날 또는 목적물 인수한 날(준공검사 완료일)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
 - ※ 수급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수급사업자에게 강요 금지

2. 제정일자 : 2015. 12. 31(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하도급관리의 전자적 처리 및 계약보증금 등의 전자적 납부 등의 내용으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3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3626호, 2015. 12. 29.】

1.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 수요기관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 전자시스템을 이용

2. 계약보증금 등의 전자적 납부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납부. 다만,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금 납부 가능.

3. 시행일자 : 2016. 3. 30.(수)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300억 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6829호(2015. 12. 31.), 기획재정부예규 제280호(2016. 1. 1.)】

- | | |
|---|---|
| <p>1. 300억원 이상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종합심사낙찰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도 함께 심사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하도급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60% 이상, 원도급 금액의 82% 이상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와 사후 불이행시 감점 <p>2.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연장 (2017. 12. 31.까지)</p> | <p>3.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근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금액의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입찰공고 시 지정 <p>4. 시행일자 : 2016. 1. 1.(금)부터</p> <p>※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p> |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적용 중견기업 사업자 범위 및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월 25일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6933호, 2016. 1. 22.】

- 1. 주요내용**
- 가. 규율대상 중견기업과 보호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제7조의4, 제7조의5, 별표1)
- 대규모 중견기업이 소규모 중견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규율대상인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 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보호대상인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각각 800억원~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정함.
 - * 보호대상 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상한액인 800억원~3,000억원은 현행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및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범위〉

업 종	중소기업 범위	보호대상 중견기업 범위
의복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건설업, 광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매출액 1,000억원 이하	매출액 2,000억원 미만
인쇄업, 운수업 등	매출액 800억원 이하	매출액 1,600억원 미만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등	매출액 600억원 이하	매출액 1,200억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매출액 400억원 이하	매출액 800억원 미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직전년도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대금지급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는 작년 7월 24일에 개정된 하도급법이 직접 규율하고 있음.

나. 신고내용 통지절차 마련(제10조)

- 공정위는 신고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공정위의 신고 사실을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원사업자에게 통지

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규정(제10조의2)

-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법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규정
 - 법 위반 또는 피해사업자 및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제외

라.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별표2)

-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불법적 이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먼저 위반금액 비율을 곱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부과율을 2차적으로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함.
-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신고인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 위반*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 자진 시정하는 경우 과징금 및 벌점 부과 면제
 -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 과징금

* 선금금,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그에 따른 수수료, 할인료, 이자 미지급 위반행위

마. 벌점 부과기준 개선(별표3)

- 벌점부과 항목 신설
 - 법 위반행위 자진시정으로 재발방지 시정명령 받은 경우 : 1점
- 벌점부과 면제기준 신설
 - 공정위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진시정한 경우
 -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 협약평가 우수기업 벌점 감경 폭 하향 조정
 - (최우수)6점 → 3점, (우수)4점 → 2점, (양호)2점 → 1점

2. 시행일자 : 2016. 1. 25.(월)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행정자치부에서는 1월 15일자로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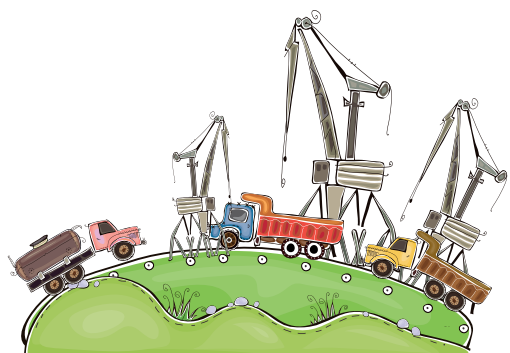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6899호 및 행정자치부령 제60호, 2016. 1. 15.】

1.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대체(시행령 제42조의3)
2. 종합평가낙찰제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별표2) (신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3. 대가 지급기간 단축(시행령 제67조) (현행) 7일 이내 (개정) 5일 이내 (이유) 예산의 조기집행 활성화로 업체의 자금난 해소하기 위함.
4.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에서 관련협회 등 단체, 학회 추천자 제외(시행령 제106조)

5. 시행일자 : 2016. 1. 15.(금)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계약예규 개정

행정자치부에서 1월 20일자로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예규 개정 주요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및 제40호, 2016. 1. 19.】

1.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에 따른 조문정리
 -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 낙찰자 결정기준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심사기준 삭제
 2.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기간 단축
(현행) 7일 이내 → (개정) 5일 이내
 3.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일부 수정
 - 관련법령에서 공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물품계약으로 발주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물품설치도 등으로 계약하는 사례 금지 등
 4. 시행일자 : 2016. 1. 20.(수)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2월 3일 주기적신고 제도 폐지 및 전문건설업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면제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법률 제14015호, 2016. 2. 3.】



1. 주기적신고 폐지(제9조 삭제)
 - 건설업 등록기준을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 건설업계 약 450억원 경제적·행정적 부담 절감예상
 - ※ 시행일 : 2018. 2. 4.(일)부터
 2. 계약추정제 도입(제22조의3 신설)
 - 발주자(수급인)가 도급(하도급)계약 시 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요청을 하고, 15일 이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추정 제도 도입
 3.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면제(제28조의2 제2항 단서 신설)
 - 전문건설업자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 직접시공 대상공사가 연간 13만건으로 약 360억원 경제적·행정적 부담 절감 예상
 4. 보증서 교부 확인(제34조 제7항 및 제68조의3 제6항 신설)
 -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 교부 확인 의무화
 5. 불이익행위 금지(제38조의3 신설)
 - 불법·불공정하도급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 행위 금지
 6. 건설업자 도급 명문화(제41조 단서 신설)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을 받지 않는 공사(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명문화
 7. 실태조사 실시(제49조 단서 등 신설)
 - 건설업자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연 1회 이상 경영 실태조사 실시
 - ※ 시행일 : 2018. 2. 4.(일)부터
 8. 포괄대금지급보증 폐지(제68조의2 삭제 등)
 - 최저가 낙찰제 폐지(종합심사제 도입), 저가낙찰공사(70% 미만)발주자 직접지급제도 도입 등 관련제도 폐지와 대체제도 도입으로 포괄대금지급보증 제도 폐지
 - ※ 시행일 : 2017. 2. 4.(토)부터
 9. 시행일자 : 2016. 8. 4.(목)부터 시행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94호(2016. 1. 12.)】

- 1.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제98조 제1항)
 - 구조적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추가
 - * 제101조의2 제1항(높이가 3미터 이상인 비계, 터널의 지보공 등)
- 2. 건설사고 통보 방법(제105조)
 -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전화·팩스 등의 방법으로 통보
 - * 제4조의2(사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 3.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감점제도 도입 및 교육요건 완화(별표1)
 - 건설사고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 내에서 감점
 - 건설기술자 인정을 위한 건설기술 관련 교육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
- 4. 시행일 : 2016. 5. 19.(목)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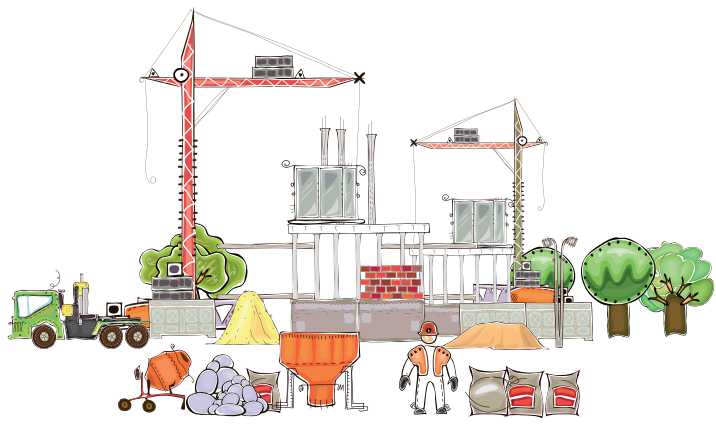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에서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월 6일자로 관련 시행규칙을 정비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령 제533호, 2016. 2. 1.】

- 1. 공정위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당초) 3개월 → (개정) 6개월
- 2. 명칭변경(조문 정리)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3. 시행일자 : 2016. 2. 1.(월)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시행

국토교통부에서는 교육 제도 신설에 따른 건설업 교육 내용, 교육기관 지정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 공포하고 2월 12일부터 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6979호, 2016. 2. 11.】

1. 주요내용

-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2조의4, 제12조의5, 별표 1의2 신설)
 - 건설업 교육은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건설산업 관련 법규 등 8시간 이상 실시
 - 교육기관으로 협회 등을 지정(고시사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 지정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 마련
 - * 강의실 100㎡,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 각 2명
 - ※ 현재 교육기관은 미지정 상태이며, 향후 확정 시 별도 안내할 계획임.
- 법령기준을 초과하여 도급계약으로 하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제30조제2항 신설)
 - 도급계약으로 특별히 따로 정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도 별도 명시
- 추가 · 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방법 신설(제34조의7 신설)
 - 내용증명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
 - ※ 서면으로 요구 않을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안 별표7)
- 신규 건설업자 일시적인 자본금 미달 허용(제79조의2제3호 라목 신설)
 - 신규 건설업체가 일시적 자본금미달로 폐업하지 않도록 50일간 미달 허용

※ 제7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개정(별표1 개정)
 - 투석공사(수중공사업)를 업종별 건설공사 예시에 추가
- 법 위반 시 제재처분 감경기준 개선(별표6 개정)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 15일 감경(※법인 대표자가 교육 이수 시 15일,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 1명당 5일 감경할 수 있으나, 해당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 시에는 건설업 교육이수로 감경 받을 수 없음.)
 - 영업정지(과징금)를 15일(1천만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 이수 시 15일 이내에서 감경
 -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2. 시행일자 : 2016. 2. 12.(금)부터(제30조는 2016. 8. 12.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령 제289호, 2016. 2. 12.】

1. 주요내용

- 건설업 교육기관 교육대행 업무 규정(제10조의4 신설)
 - 매년 11월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수료증 발급 및 건설업 등록업무수탁기관에 교육상황 통보
- 건설업 교육기관 지정서 및 교육관련 서식 신설 · 개정(제10조의3 신설 등)
 - 건설업 등록증 및 교육기관 지정서, 등록수첩, 교육수료증 등
- 건설공사대장 등에 건축허가(신고)번호 기재 신설(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 서식 개정)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인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별표1, 별표2 개정)
 - 해외건설 현장의 국내 인력 고용 시 가점

2. 시행일자 : 2016. 2. 12.(금)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 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고시 연장 안내

부산시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기에 관련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1. 고시명 :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20호, 2016. 2. 11.】

2. 시행일자 : 2016. 2. 11.(목)부터

3.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연장 : '16. 7. 1~'19. 6. 30.까지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 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 명확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대통령령 제26985호(2016. 2. 17.)】

1.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추가(제28조의6)

- 이동식 크레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안전검사 의무화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2.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 확대(별표3)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로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 * 지상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최대 지간길이 50미터 이상 교량, 터널공사, 깊이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등
-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3. 공포 일자 : 2016. 2. 17.(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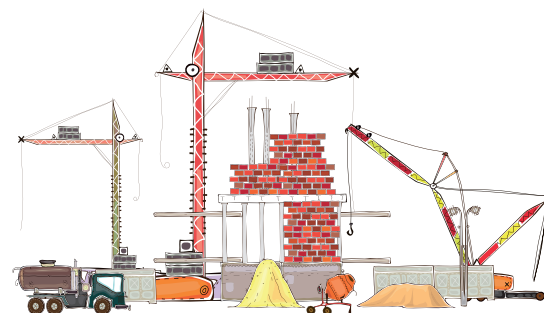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령 제150호(2016. 2. 17.)】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 명확화(제32조 제2항)

- 사용내역서 매월 작성(단, 1개월 미만 공사는 준공 시 작성)
- ※ 시행일 : 공포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2. 공포 일자 : 2016. 2. 17.(수)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조달청에서는 2월 1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에 따라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심사낙찰제 등 제정 주요 내용

【조달청 토목환경과-324호 및 훈령 제1730호, 2016. 2. 1.】

- | | |
|--|--|
| <p>1. 3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심사 ○ 저가하도급 방지를 위한 하도급계획 심사제도 도입
(개별 하도급계약금액이 예정가격의 60% 이상, 원도급 금액의 82% 이상 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와 사후 불이행시 감점) | <p>2. 시행일자 : 2016. 2. 1.(월)부터</p> <p>※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지침·고시·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p>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확대,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기준 완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령 제295호(2016. 3. 7.)】

- | | |
|---|--|
| <p>1.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 확대(제6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측장비, 폐쇄회로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 ○ 시행 : 2016. 5. 19.(목)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 <p>2.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 완화(별표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100㎡ 이상 → 50㎡ 이상 ○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 30㎡ 이상 → 20㎡ 이상 ○ 시행 : 2016. 5. 19.(목)부터 <p>※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p> |
|---|--|



내가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의 뇌리에 새겨질 수 있도록
 100번이고 반복해야 합니다.

퍼시 바네빅, ABB 회장

슬로건이나 연설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변화가 필요한 곳에 적당한
 사람을 배치함으로써 가능하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전략이나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이다.

잭 웰치, GE 전 회장



천재 엔지니어 이야기



오랜 기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엔지니어가 병원을 개업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병원 입구에 이렇게 간판을 달았다.
 '단돈 500달러로 모든 병을 고쳐드립니다. 실패할 경우 1,000달러를 돌려드립니다'
 이를 본 한 개업의사가 1,000달러를 쉽게 벌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이 병원에 들어갔다.

의사: 미각을 잃었어요.
 엔지니어: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이 환자분의 혀에 3방울 떨어뜨리세요.
 간호사는 엔지니어의 말대로 했다.
 의사: 웬! 휘발유잖아요!
 엔지니어: 축하드립니다! 미각이 돌아오셨네요. 500달러입니다.

의사는 짜증이 잔뜩 난 채로 500달러를 내고 떠났다가 며칠 후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의사: 기억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엔지니어: 간호사! 22번 약을 가져와서 3방울 떨어뜨리세요.
 의사: 22번? 그거 휘발유잖아요!
 엔지니어: 축하드립니다! 기억력이 되돌아오셨네요. 500달러입니다.

의사는 이를 악물고 돈을 냈다. 며칠 후 그는 그곳에 다시 찾아갔다.
 의사: 시력이 너무 약해져서 윤곽밖에 보이질 않아요.
 엔지니어: 안타깝게도 적합한 약이 없네요. 1,000달러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5달러 지폐를 두 장 내밀었다.
 의사: 잠시만요, 이건 10달러잖아요!
 엔지니어: 축하드립니다! 시력이 돌아오셨네요. 500달러 되겠습니다.

수뢰혐의로 몇몇 은행장과 기업 총수, 국회의원이 조사를 받았다. 이례적으로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돼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먼저 기업 총수가 진술했다.

“5억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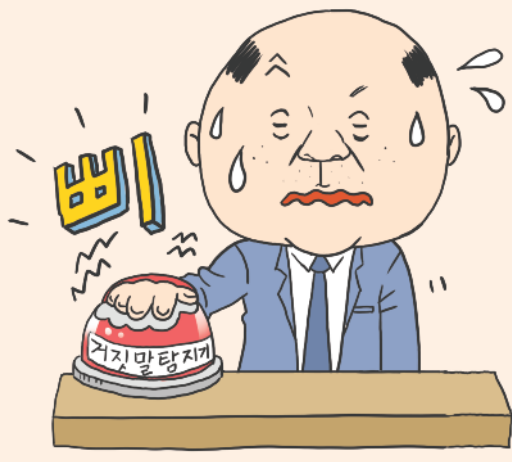
그러자 거짓말탐지기가 ‘빠’ 했다. 총수는 “사실은 10억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하고 실토했다.

다음은 은행장 차례였다. “10억 원을 받아서 500만 원을 착복하고 나머지는 은행 수익으로 돌렸습니다.”

그러자 탐지기가 ‘빠’했다. 은행장은 얼른, “아니, 뒤바뀌었습니다.” 하고 실토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 차례였다. “사실은...” ‘빠---’

용한 거짓말탐지기



남편들의 반응



아내의 요리가 맛없을 때 남편들의 반응

- 20대 : 맛있게 먹는다.
- 30대 : 직접 간을 맞춘다.
- 40대 : 배달시켜 먹는다.
- 50대 : 먹고 들어간다.
- 60대 : 물 말아 먹는다.
- 70대 : 묵묵히 밥만 먹는다. 반찬 없이 계속 되새김질하면 밥에서 단맛이 난다.
- 80대 : 아프다고 한다.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한끼의식사기금 이사장 윤경일



지구촌에 사랑과 평화 심은 닥터 윤경일 이야기

부산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사)한끼의식사기금 윤경일 이사장이 발로 쓴 구호활동 관련한 책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가 서교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와 아시아 오지를 오가며 절대빈곤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했던 에피소드 38편이 담겨져 있다. 아프리카, 아시아 오지에 학교와 도서관을 지어 주고, 빈곤퇴치를 위한 각종 구호사업과 자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제3세계의 그늘진 곳에서 묵묵히 희망을 심어온 지은이의 살신성인 행위가 한 권의 단행본으로 나왔다.

아프리카·아시아에서 빈민의 친구 불러

이 책에는 기아로 인해 쓰레기장에 머리를 들이밀고 먹을 것을 뒤지는 사람들, 에이즈와 같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식수 부족으로 구정물을 마시는 사람들, 비소가 섞인 물을 마시며 신음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 공동묘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 등 충격적인 사례가 가득 담겨 있다. 지은이는 그곳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권이 있는 빈민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또 장기적 관점에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의사로서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12년간 그렇게 힘든 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남들보다 조금은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겸손해 하는 그에게 현지인들은 '빈민의 친구'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다.

도서명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
지은이 윤경일 | 출판사 서교출판사
페이지 372쪽 | 인쇄 울컬러 | 값 15,900원
ISBN 979-11-85889-17-2 03880

낮에는 병원에서 저녁에는 구호단체 사무국에서

이 책에는 마을 공동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FFW프로그램 뿐 아니라, 가장 취약계층인 아동과 여성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할례의 비인권적 상황, 시각장애인 컴퓨터 교실, 여성노동자들의 버림받은 삶에 대한 안타까운 현장을 구체적으로 예시한다. 이 책의 지은이는 매일 낮에는 병원에서 진료하고 일과 후에는 구호단체 사무국으로 향한다. 한끼의식사기금 창립 후부터 줄곧 본부 사무국 요원들과 얼굴을 맞대고 일 해온 그는 해외 3개국 지부에서 근무하는 20여명의 직원들과 수시로 SNS 소통을 하고 있다. 4천 여 명의 정기후원자와 4만 여 명의 사이버 후원자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윤이사장은 수입과 지출 등 재정 상황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로

지은이는 이 책의 6장에서 기아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기아가 빛어낸 슬픈 삶에 대해 실례를 들어가며 고찰한다. 특히 단순한 원조보다 새로운 모색을 통해 기아의 근본적인 퇴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 외에 짐바브웨에서 경험했던 시스터 제니스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무가베 정권의 30여년 폭정을 서로 대비시키며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양면성을 그려내기도 한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족의 힘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밝히고 있는 윤이사장은 <우리는 모두 같은 꿈이 있습니다>의 출판이 한끼의식사기금의 국제구호활동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인세 전액을 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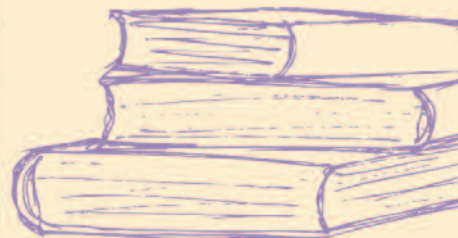
저자 윤경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칼럼리스트. 그는 2004년 국제구호단체인 (사)한끼의식사기금을 설립했다. 지난 12년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짐바브웨 등 개발도상국 오지를 다니며 가난한 이들을 만났다. 그들을 위해 일하면서 느끼고 체험했던 것들을 꾸준히 글로 옮겼고 이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책으로 엮었다. 현재 부산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모든 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인류'를 꿈꾼다. 『로마와 사랑에 빠지다』, 『알고 보면 나는 바보다』, 『여자와 남자는 어떻게 다른가』 등 저서가 있다.

추천의 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실천이 부족한 우리,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무관심을 성찰할 틈도 없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도 시간이 없다고 푸념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사랑의 '죽비' 처럼 나태하게 잠든 의식을 일깨운다. 조금의 관심만 있으면 지구촌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한 톨의 쌀, 한 방울의 물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어서 일어나라고 우리 모두를 초대한다. <한끼의식사기금>을 설립한 닥터 윤경일의 체험적 이야기를 한 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의 전달자, 실천가가 되고 싶은 아름다운 갈망을 갖게 된다.

— 이해인 수녀 · 시인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포한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 적용될 표준품셈은 269개 항목이 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설공사에서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시설물의 구조에 맞게 높이와 간격 별로 세분화하고, 강관비계의 발판과 내부계단 설치를 포함하는 한편, 시스템비계를 신설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는 포스트텐션 공종 구분을 통일하고 시공절차를 체계화했으며, 도로포장 및 유지공사에서는 도로안내표지판의 기능 공 인력조합에 특별인부를 반영했다.

타일공사는 부조타일 별도 계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목공사 및 수장공사에서는 목재데크 신설, 단열재 두께기준 확대 등이 개정되었고, 지붕 및 흙통공사는 슬레이트, 함석 등의 지붕재를 삭제하고 금속기와 및 금속판 지붕재를 신설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표준품셈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전년도 하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대비 3.2% 상승
168,571원...일반직종 159,184원

올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임금이 전년도 하반기에 비해 3.2% 오른 168,571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회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1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해당 조사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1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적용된다. 건설 주요 15개 직종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반장 117,612원 △보통인부 94,338원 △특별인부 115,272원 △비계공 167,860원 △형틀목공 160,431원 △철근공 154,424원 △콘크리트공 148,586원 △포장공 131,508원 △조적공 135,009원 △건축목공 148,851원 △방수공 110,271원 △미장공 149,091원 △타일공 145,574원 △배관공(수도) 140,704원 △건설기계운전자 135,644원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임금실태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지정 공고 안내

협회는 그동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의 지정 축소를 중소기업청,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당초 공고(안)에서 조경식재 등 9개 전문건설업종 관련 공사용 자재가 축소되는 내용으로 지정내역을 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지정 공고 주요 내용〉

1. 제외 : 식생매트, 인조잔디,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유리
2. 축소 : 공원체육시설, 자연석 판석, 승객용 엘리베이터, 신발장, 타일, 합성수지제(문, 틀, 창)는 공공분양주택 제외, 특수페인트는 도로표지용 5종 제외, 금속제창은 20층 이상 AL커튼월 제외, 체육시설 탄성포장재는 국제규격 제외 등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회원전용공간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산광역시 및 구·군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안내

부산광역시 및 구·군청의 발주계획, 입찰, 계약, 대금지급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발주기관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발주기관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연번	발주기관	홈페이지 주소	연번	발주기관	홈페이지 주소
1	부산광역시	http://contract.busan.go.kr/	10	사하구청	http://contract.saha.go.kr/
2	강서구청	http://contract.bsgangseo.go.kr/	11	수영구청	http://contract.suyeong.go.kr/cmios/
3	금정구청	http://contract.geumjeong.go.kr/	12	서구청	http://contract.bsseogu.go.kr/
4	남구청	http://contract.bsnamgu.go.kr/	13	연제구청	http://contract.yeonje.go.kr/
5	동구청	http://contract.bsdonggu.go.kr/	14	영도구청	http://contract.yeongdo.go.kr/
6	동래구청	http://contract.dongnae.go.kr/	15	중구청	http://contract.bsjunggu.go.kr/
7	부산진구청	http://contract.busanjin.go.kr/	16	해운대구청	http://contract.haeundae.go.kr/
8	북구청	http://contract.bsbukgu.go.kr/	17	기장군청	http://contract.gijang.go.kr/
9	사상구청	http://contract.sasang.go.kr/			

지방계약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업무 및 전화번호 안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계약 관련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정자치부 회계제도와 소속 지방계약민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지방계약민원센터의 담당업무별 전화번호 및 방문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담당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업무	담당자	연락처
지방계약민원센터 총괄 계약분쟁 조정	기효종	02-3274-2500
선금, 대가, 계약금액 조정, 노무비 직접지급	이경근	02-3274-2501
적격심사, 공동계약, 대형입찰, 원가계산	양상윤	02-3274-2508
입찰, 계약 일반조건	송주호	02-3274-2504
수의계약, 협상계약	윤신혜	02-3274-2505
기술용역 전반	신경선	02-3274-2509
공사계약 전반	이현정	02-3274-2502
FAX		02-3274-2510

2. 방문장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5층 지방계약민원센터(공덕동, 지방재정회관) (우편번호 : 0421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 긴급입찰 추진 안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 2016년도 상반기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입찰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당초 입찰공고기간은 7일~40일이었으나, 긴급입찰로 공고할 경우 입찰 공고기간은 5일이다. (수익계약의 경우 3일 이내)

2016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안내

부산시회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작성 시 활용되는 '2016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 기계경비 산출표는 표준 품셈에 수록된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로계수와 주연료 및 잡재료, 조종원 등의 경비를 산출한 것이다.

산출표에서 국산기계는 공장도 가격(원)이며 도입기계는 미국 달러화로 표시되어 2016년 1월 4일 현재 원화로 환산할 경우 1,172원으로 책정하여 산출되었다. 환율에 3%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건설기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주연료란에 휘발유 또는 중유로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경유를 말하며, 주연료 가격은 구입 조건 또는 유가 인상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게재되지 않았다. 엔진유, 기어유, 유압유 등 잡재료는 크랭크케이스 용량, 피스톤 및 링의 상태, 기어박스의 용량, 오일의 교환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충량을 포함한 시간당 소비량을 주연료비의 비율로 표기한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기계경비산정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외건설 전용 홈페이지 오픈 안내

협회 중앙회에서는 전문건설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각종 정보와 자료 제공을 위해 '해외건설 전용 홈페이지(GLOBAL KOSCA)'를 개설·운영한다.

건설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고 국내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주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14년 중앙아시아, 15년 동남아시아 등)하여 발주처와 건설단체, 현지 대형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 전문건설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시장개척을 위해 회원사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건설업 신고, 공사수행 절차 및 각종 지원제도 안내, 해외건설 소식 및 프로젝트 정보, 해외건설보고서 등은 글로벌 코스카 홈페이지(<http://global.kosca.or.kr>)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코스카 홈페이지(www.kosca.or.kr) 'Quick Service 메뉴'를 통해서도 접속 가능하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자료 무상전환에 따른 안내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영상지도 15종 온라인수수료 '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3월 2일부터 수치지도 및 영상지도 15종 약 26만 도엽(8TB)의 공간정보에 대한 온라인 다운로드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 판매가격을 대폭 인하하였다고 안내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지도 1도엽을 구매하려면 최대 1만 7,000원을 지불해야 해 전국지도의 경우 총 2억 7,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온라인은 무료, 오프라인 구매는 180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도엽은 한 지역에 대한 일정 축적의 지도 1장을 말하며, 축적이 1대 5,000인 지도로 우리나라 전부를 나타내려면 약 1만 8,000도엽의 지도가 필요하다. 수치 지도는 공간정보를 기호나 문자, 색상 등으로 표시해 컴퓨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로, 각종 설계, 교통(내비게이션 등), 현황조사 등에 활용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다만 이번에 수치지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매칭펀드로 제작한 1,000대 1 지도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 안에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법 개정 등을 추진해 항공사진을 포함, 수수료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품셈 개정을 위한 실사 가능한 현장 추천 협조

실사 현장 추천 저조...현장 실사는 개정을 위한 필수 작업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월,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 중 공사비 산출기준이 없는 항목을 발굴, 표준품셈을 개정해 발표하고 있다.

표준품셈 개정은 현행 품셈에서 불합리한 항목이나 신설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현장 실사를 통해 품을 도출하고, 표준품셈 심의위원회(한국건설기술 연구원)를 거쳐 최종 개정·확정된다.

그러나, 품셈 개정 전 선행 작업인 실사를 위한 현장 추천이 저조하여 품셈 개정 업무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며, 상황이 필요한 품 항목 또한 개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부산시회는 2017년도에 적용될 표준품셈에 대하여 불합리한 품 항목이 제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실사 가능한 현장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한편, 현재 2017년도 적용 품셈 개정 대상 항목은 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안내

공사 표준시장단가 1,968개 항목 공표,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0.39% 상승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2회)해 표준시장단가를 확정하고, 2월 29일 '2016년 상반기 적용 표준시장단가'를 공표했다. 표준시장단가는 토목 1,083개 항목, 건축 510개 항목, 설비 375개 항목 등 총 1,96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747개 공종의 단가를 심의했다.

총 1,968개 항목 중 151개 항목이 동결되고, 68개 항목이 일부 하락한 반면, 1,749개 항목은 상승했다. 작년 하반기 대비 평균 단가상승률은 0.39%(공사비지수 변동분 제외 시 0.16%), 총액은 0.12(0.0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근가공조립 공정이 약 3% 정도 상승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신기술·원가정보 ⇒ 표준시장단가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권해석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시점 관련

【질의】

발주처인 ○○○공사로부터 조기 개통하라는 지시가 있어 조기 개통 후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개통일과 전체준공일은 약 3년간의 기간 차이가 있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부분준공검사 및 인수인계를 완료한 상태임. 이 경우 개통구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시점을 개통구간 준공검사일로부터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신】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발주처의 계약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는 바,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기산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계속공사일 경우에는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발주기관이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규정에 따라 전체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는 차수준공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규제개혁법무담당관-6254, 2013. 10. 24.



발주처의 계약상대자 의사에 반한 선급지급 강요 관련

【질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하도급 받아 시공한 공사에 대해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보수공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시공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중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8]에 의하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1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문공사의 하도급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아 동일 업종 간에 하도급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6. 1. 15.

건설판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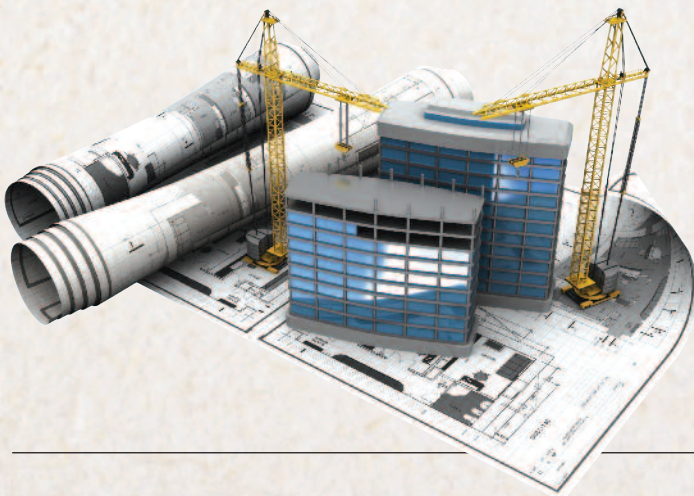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유류대금]

【판시사항】

- [1]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한편 민법상 조합의 경우 법인격이 없어 조합 자체가 본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른바 조합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모든 조합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하나, 반드시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합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한 때에는 대리인에 대하여도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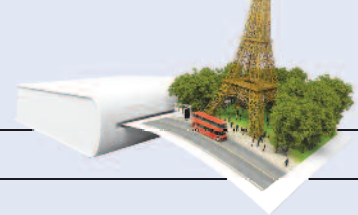


[2] 갑이 금전을 출자하면 을이 골재 현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여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어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에서, 을은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을이 위 골재 현장의 터파기 및 부지 평탄작업에 투입될 중장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는 골재생산업을 영위하는 상인인 갑과 을을 조합원으로 한 조합이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상법 제47조 제1항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을이 위 골재현장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48조에 따라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출처】 전수안(재판장) 고현철(주심) 김지형 차한성



에펠탑(Eiffel Tower)



파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상징적 건축물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빠지지 않으며, 프랑스의 대표 관광지로 꼽히는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의 샹 드 마르스 공원에 있다.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에 맞춰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1889년 3월 31일 준공되었고 같은 해 5월 6일 개관하였다. 에펠탑이라는 이름은 이 탑을 세운 프랑스의 교량기술자 '구스타프 에펠'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탑의 높이는 약 300m로 건립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에펠탑 완공 후 구스타프 에펠은 "프랑스는 높이 300m의 깃대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통신용 안테나와 첩탐이 덧붙여져 탑의 총 높이는 324m가 됐다.

에펠탑의 재료로는 프랑스에서 제조된 7,300톤의 시멘트 마르탕 평로강이 사용되었다. 1만 8,038개의 철근과 250만 개의 리벳으로 지어졌으며, 그 무게는 1만여 톤에 달한다. 2년 2개월 5일의 공사기간을 거쳐 대역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에펠탑은 산업화 시대의 개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돌을 재료로 하는 건축의 시대에서 철을 재료로 하는 건축의 시대로의 전환점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공사 당시, 에펠탑을 놓고 예술성과 공업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분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탑이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과 지식인들도 '예술도시인 파리의 미관을 망치는 혐오스러운 쇠덩어리'라며 에펠탑 건립에 반기를 들었다. 소설가 에밀 졸라, 작곡가 샤를 구노 등 유명 예술인들도 '파리의 수치'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완공된 후에는 새로운 예술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고, 오늘날에는 파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당당히 자리 잡으며 세계인들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 당초 에펠탑은 건립 후 20년이 지난 1909년에 해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 무렵 무선 전신 전화가 발명되고 안테나로 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탑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철거 비용 문제도 에펠탑의 존치에 한몫했다. 덕분에 에펠탑은 지금도 무전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중이다.



타지마할 (Tāj Mahal)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

‘찬란한 무덤’으로 불리는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아그라 남쪽 자무나 강가에 자리한 궁전 형식의 묘지다. 무굴제국의 제5대 황제였던 샤 자한이 자신이 사랑했던 왕비 뭉타즈 마할을 추모하여 만들었다. 샤 자한 황제는 왕비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따 뭉타즈 마할을 지었고, 후에 타지마할로 이름이 바뀌었다.

타지마할은 건립기간에만 23년이 걸린 대작이다. 페르시아 출신의 건축가 우스타드 아마드 라호리가 설계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유럽 출신 장인을 비롯해 약 2만 명의 일꾼이 동원됐다. 최고급 대리석과 붉은 사암은 현지에서 조달되었지만, 궁전 안과 밖을 장식한 보석들은 미얀마, 이집트, 중국, 터키 등 세계 각지에서 수입되었다. 건립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탓에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한다.

1983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타지마할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보아도 완벽한 대칭을 이룬 걸작이다. 웅장한 건물은 공중

에 떠 있는 듯 신비롭고, 순백의 대리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빛깔이 달라져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붉은 사암으로 된 정문을 통과하면 무굴양식의 정원이 펼쳐진다. 길이 300m에 이르는 긴 수로 가운데에는 연꽃 모양의 수조와 분수가 있다. 수로에 비친 타지마할의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며, 세계 곳곳에서 이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다.

타지마할 본당은 높이 65m의 정사각형 건물로, 주위에는 첨탑 4개가 서 있다. 양파 모양의 돔으로 만들어진 본당 지붕은 백색 대리석 벽돌로 정교하게 쌓아 올려졌다. 본당 양쪽에는 영빈관과 모스크가 대칭을 이루며 세워져 있어 전체적인 균형미가 뛰어나다. 본당 내부에는 대리석에 정교한 문양을 내고 각종 보석으로 장식하는 피에트라 두라 공법이 사용되었다. 1층에는 샤 자한과 뭉타즈 마할의 관을 상징하는 가묘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무덤은 지하에 있고 관광객은 출입할 수 없다.

회원사 질의·응답

1. 건설업 대여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중일 경우에는 건설업 반납 또는 추가등록은 제한되며, 건설업 등록말소 이후 5년이 경과해야만 재등록이 가능함.(5년 이내에는 타 업종 추가등록도 제한됨)

2. OO건설공사를 2014년도에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여 공사 진행 중 2015년도에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증액으로 변경계약(전자)을 체결할 경우 인지세 납부 기준은?

- 건설공사 전자계약의 경우 2010.12.31.까지는 인지세법상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2011.1.1.부터 과세대상으로 개정되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도급문서에만 인지세가 부과되었음. 그러나 2015.1.1.부터는 모든 전자문서에 인지세를 과세토록 법률이 개정됨.

- 따라서 2014년 전자계약한 건설공사가 2015년에 공사금액 증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도급내용의 변경에 따라 도급금액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서에 명시된 총 계약금액으로, 도급내용 변경 없이 단순히 도급금액만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에서 기존 계약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3. 종합건설업체로부터 OO고속철도 지하차도 난간과 가드레일, 표지판 등 철물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였음.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철도공사로 보아 5년 또는 7년에 해당 하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4에서는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공사의 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유무, 도급계약내용 및 공사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4. 아파트 실내건축공사 시공완료 후 일정기간(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이 지난 후 사용 도중에 파손된 부분까지 입주자들이 하자요구를 함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에서는 그 책임을 전문건설업체에 전가하고 있음. 대응방법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는 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 또는 규격 등의 미달로 인한 경우, ②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③ 발주자가 공사목적물을 관계법령에 따른 내구연한 또는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준공검사 후 인수하여 사용 도중 사용자의 과실로 파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의무가 없음.





5.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에 부계약자로 참여 중에 있음.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에 대해 하도급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2절 3. 나. 계약의 이행에서는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계약자 분담시공부분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 할 수 없음.

6.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공고 시 현장설명회 개최 일정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현장설명회를 실시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억원 미만은 7일, 50억원 미만은 15일, 50억원 이상은 30일 전에 현장설명회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서는 재공고입찰, 예산 조기집행,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에 긴급한 입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7. 건설일용근로자 외에 상시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사업주 등)에 의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 분기별 3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8. OO공단에서 수의견적 제출 공고한 건설공사에 1순위로 낙찰되었으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제재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수의계약 결정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3개월간 참여할 수 없음.

9. 물품납품으로 체결된 계약이나 현장설치 조건으로 계약된 건을 실적신고하여 건설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함. 이 경우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건설공사대장 통보 대상인지 여부 ?

- 단순납품의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즉 건설업면허를 수반하는 설치공사였다면 통보 대상임.

- 특히, 건설공사 실적신고 후 실적으로 인정받았으나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사 준공 시까지 미통보할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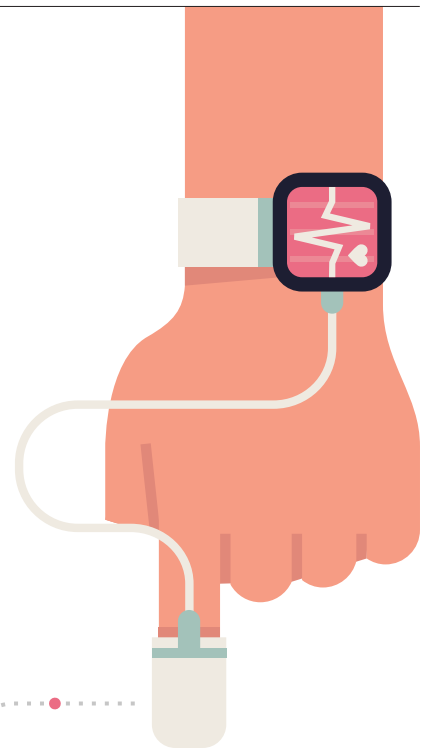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1년, 2년, 3년 후의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지식, 정보, 창조
 시대에서는 그 예측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다. 무엇이 기초이고, 무엇
 이 표준일까?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그 변화의 속으로 함께 산
 책해 본다면 그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이게 공상이라도 좋다. 인류의
 발전은 공상이 현실로 지속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5편 : 웨어러블 기기>

• 웨어러블 기기란?

- 사람의 몸에 입거나 걸쳐서 컴퓨팅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 웨
 어러블 기기 개념에는 컴퓨팅 기능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도 포함
 된다. 휴대가 가능하거나, 사람의 피부에 부착해서 사용하거나, 사
 람 몸에 넣거나 먹을 수 있는 기기들을 포괄한다. 작은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한계에도 향후 인간, 사물, 기기를 연결시키는 주요 기
 술로 촉망받고 있다.



• 웨어러블 기기의 대표적인 예

- 옷이나 시계·안경처럼 자유롭게 몸에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로 소형화·경량화를 비롯해 음성·동작 인식 등 다양
 한 기술이 적용된다. 구글이 내놓은 스마트 안경인 구글글라
 스, 말하는 신발(Talking Shoes), 애플과 삼성, 마이크로소프
 트(MS)가 각각 개발하고 있는 스마트 시계인 아이워치, 갤럭시
 시워치, 윈도우치 등을 웨어러블 기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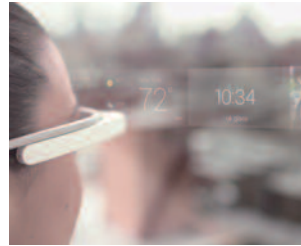
요즘 대세는 '손목 위에서는 노는 페이 전쟁'이다. 현재 세계
 최대 시계 제조업체인 스위스의 스와치는 NFC(근접 무선통신)
 를 지원해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할 수 있는 '벨라미(Bellamy)
 '를 출시할 계획이고, 애플 워치는 애플페이를 지원하며, 삼성
 전자의 기어S2는 삼성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 웨어러블 기기 활용 분야

- 인간이 직접 몸에 걸치는 웨어러블 기기는 라이프 로그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장비다. 예컨대 대표적인 웨어러블 기기인 ‘핏빗포스(Fitbit Force)’의 경우 걸음 수 같은 개인 활동량부터 섭취·소모 칼로리 같은 식생활 습관까지 데이터화해 사용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픽으로 제시한다. 웨어러블 기기의 효시 격인 제품으로는 구글글라스가 있다. 또한 세계 최대 시계 제조업체인 스위스의 스와치는 NFC(근접 무선통신)를 지원해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할 수 있는 ‘벨라미(Bellamy)’를 출시할 예정이다. 벨라미는 스마트 워치는 아니지만 NFC 칩을 내장하고 있어 스마트폰과 연동, 결제가 가능한 제품이다. 스와치 벨라미는 메신저, 메일, 통화, 심박 체크, 운동량 확인 등 일반 스마트 워치의 각종 기능은 활용할 수 없지만, 모바일 결제 기능만 특화했다. 말하자면 시계를 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웨어러블 기기와 라이프 로그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일상의 기록’이란 뜻의 라이프 로그는 한 개인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 어디로 이동했으며, 누구 만나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으며,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인간 생활의 모든 기록을 의미한다. 라이프 로그는 의료계에서 특히 중요한 자원이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한 라이프 로그는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의 생활 관리나 암 환자의 수술 후 관리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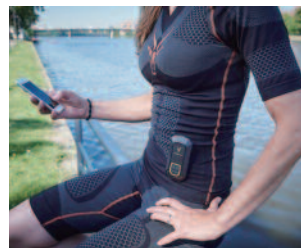
구분	형태	대표제품
액세서리형	시계, 안경, 목걸이 등	스마트 안경, 스마트 워치
직물/의류 일체형	직물 제품 혹은 의류에 일체화된 형태	직물센서, 스마트 웨어, 의류일체형 컴퓨터
신체 부착형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	스킨패치형 센서 및 장치
생체 이식형	생체에 이식할 수 있는 형태	이식형센서 및 장치 - 체지방 감시장치, 혈관이상 탐지, 미세 암세포 제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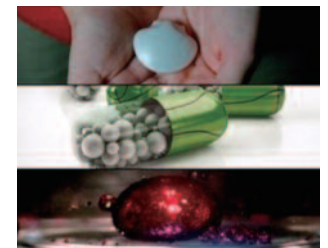
구글 글라스



핏빗포스



스마트 웨어



체지방 감시장치

웨어러블 기기의 전망

웨어러블 기기의 전망IT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이들의 뒤를 잇는 차세대 IT 시장의 격전지가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아직 완전히 대중화되지 않은 틈새시장이어서 중소 개발사들도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한 개발력만 보유하고 있으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장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들은 음성 인식, 제스처 인식, NFC, 헬스 모니터링 및 증강현실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2~10년 사이에 대부분의 디바이스에 포함되는 기본 기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5~10년 이내 성숙될 기술들은 아직 연구단계의 시제품으로 소개되는 정도의 기술로 빅데이터, 웨어러블 UI(Wearable User Interface),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모바일 헬스 모니터링(Mobile Health Monitoring) 등이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또 다른 형태인 전자 문신 등의 몸 부착형과 알약 등의 체내 삽입형은 새롭게 급부상하는 기술이나,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하도급 분쟁 해법 【선급금】

원사업자, 임의로 공정·자재 구분해 선급금 주면 위법소지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원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하도급법이 아닌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할 문제인 것이다. 하지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다면 원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선급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계약 혹은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이러한 계약 등에 상관없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전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 위반은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주었다면 하도급법 위반 여부는 사례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령한 선급금의 내용을 한도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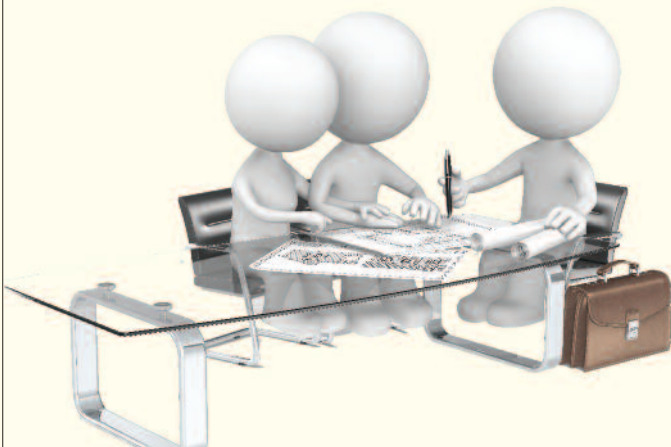
예를 들어, 건축 공사에서 발주자가 공사의 선행 공정인 터파기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했다면, 원사업자는 해당 공사에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후행 공정인 창호 공사나 기계설비 공사 등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물론 계약에서 당사자가 별도로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관급공사의 경우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급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단순한 물품 구매는 이러한 선급금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도급계약이 단순히 '물품구매계약'이라고 작성됐더라도, 공사업의 등록을 요건으로 한다거나, 규격과 재질 등을 지정해 제작을 의뢰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물품구매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명칭에 상관없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선급금이 사용될 공사나 자재 등이 지정된 사정은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원사업자가 임의로 공정과 자재 등을 구분해 선급금을 지급한다면 이 또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출처] 2016.3.7. 대한전문건설신문 제1296호
- 이우만 변호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이후 60일 이내 줘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하도급대금의 지급 시기는 계약서상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라고만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수급사업자는 석공사를 완료한 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했는데,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 특수조건'에서 '공사대금으로 발행되는 어음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어음의 만기일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익월말 기준 120일 어음으로 한다' 고 기재돼 있다며 하도급대금 청구 다음 달에 120일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는 실질적으로 공사완료 후 150일 후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건설 하도급 현장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부담시키기 위해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이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청구보다 때로는 늦게 지급하거나 때로는 조금 지급하고 이로 인해 자금 압박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더라도 도산이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이를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원사업자의 이러한 부당한 횡포를 막기 위해 그 지급 시기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즉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그 약정기일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 의할 경우 모든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돼야 하며, 설사 당사자가 계약으로 그 지급기일을 60일이 넘는 날로 정하더라도 하도급법에 의해 그 기일이 60일로 단축되게 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원사업자는 '일반조건'에 우선하는 '특수조건'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실질적인 공사완료일로부터 150일이 되는 날로 약정했지만 이러한 약정은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원사업자는 공사완료일 이후 60일이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위 사안 이외에도 '발주자의 합격 통지 후'나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수령 후'라는 '특수조건'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기재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일의 연장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까지만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60일이 초과했다면 '합격'이나 '수령'과는 상관없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2016.4.4. 대한전문건설신문 제1300호

- 이우만 변호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



신규 회원가입 업체 소개

〈2016. 1. 1. ~ 3. 31〉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가야건설산업 이 찬 우	부산 강서구 유통단지1로 50, 202동202호(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T : 051-361-0678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건안토건 정 성 민	부산 북구 만덕대로65번길 3, 11층1108호(덕천동, 미디어오피스텔) T : 051-337-4440 보유업종 : 토 공
 경신산업개발(주) 정 순 덕	부산 기장군 기장읍 반송로 1568, 2층 T : 051-724-2261 보유업종 : 수 중	 경향건설(주) 이 현 자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1604호(부전동, 신동아오피스텔) T : 051-817-5460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광동창호 김 성 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0, 111호(구서동, 협성엠파이어O/T) T : 051-581-1145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주)금도이엔지 최 재 균	부산 금정구 금강로611번길 42 (남산동) T : 051-912-3433 보유업종 : 승강기설치
 기린산업(주) 송 창 우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261번길 25, 101호(하단동) T : 051-203-1882 보유업종 : 토 공	 (주)나래종합디자인 박 명 석	부산 동래구 명륜로 258(명륜동) T : 051-552-2301 보유업종 : 실내건축
 다을건설(주) 강 성 훈	부산 남구 신선로 458, 202호 (대연동) T : 051-714-0602 보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	 다풍건설(주) 태 상 덕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 365, 상가3층 302호(안락동) T : 051-532-4342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대명에스씨아이 정 현 영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14번길 32, 301호(중동, 노보텔) T : 051-747-4219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주)대로건설 박 상 범	부산 기장군 정관읍 정관로 350 323동 114호(상가) T : 051-728-3985 보유업종 : 포 장
 (주)대양중기건설 윤 희 엽	부산 사상구 과감로 37, 11동 217호(과배동, 산업용품상가) T : 051-319-3146 보유업종 : 보링·그라우팅	 (주)대흥이엔지 김 행 건	부산 동래구 명륜로63번길 9 3층(수안동) T : 051-552-9116 보유업종 : 토 공
 (주)동남창호 나 기 주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941번길 66-12 (양정동) T : 051-818-9834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주)동양창호 김 대 수	부산 강서구 공항로1309번길 39-17 (대저1동) T : 051-941-2820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2016. 1. 1. ~ 3. 31.〉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디브레인 주 요 한	부산 수영구 수영로618번길 8, 2층 202호(광안동, 지브로빌딩) T : 051-900-7710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디케이산업 이 순 창	부산 금정구 서부로64번길 15 (서동) T : 051-521-4901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주)력카산업개발 김 경 록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108번길 74(거제동) T : 051-505-9515 보유업종 : 실내건축	 미래ENG 지 후 남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103번길 61, 상가 201호(좌동, 엘지2차아파트) T : 051-747-3104 보유업종 : 조경시설물설치
 보영개발(주) 남 성 봉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65 기장문화그린상가 301, 302, 303호 T : 051-722-6867 보유업종 : 토 공 철근·콘크리트	 (주)비전 이 혜 진	부산 연제구 명륜로 10, 1509호(거제동, 한양타워빌) T : 051-501-2340, 2341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서현개발 황 재 호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 16, 1101호 (거제동, 협성법조타운빌딩) T : 051-503-1237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성인건설 박 종 래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3로 66, 지하층 101호(신호동, 삼성빌딩) T : 070-8246-9692 보유업종 : 석 공
 (주)소해하우징 최 순 재	부산 남구 수영로 182-1, 2층 (대연동, 리즈메디칼) T : 051-625-8880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송죽원 조 청 호	부산 강서구 대저로141번길 62 (대저1동) T : 055-781-0112 보유업종 : 조경식재
 (주)시에스건설 강 금 선	부산 동래구 동래로53번길 78, 202호(명륜동) T : 051-556-4911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신광이앤지 김 정 구	부산 강서구 유동단지1로 41, 113동219호(대저2동, 부산티플렉스) T : 051-336-9772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주)신영산업개발 박 신 유	부산 사상구 광장로37번길 13, 5층(래법동) T : 051-316-5610 보유업종 : 지붕판공·건축물조립	 아레스건설(주) 김 선 애	부산 기장군 정관면 가동1길 23-8 T : 051-746-0891 보유업종 : 석 공 철근·콘크리트
 (주)에스엘실내건축 진 명 호	부산 동래구 명장로 54-2 (명장동) T : 051-515-8436 보유업종 : 실내건축	 에스제이건설(주) 이 찬 준	부산 금정구 금강로 465 (구서동) T : 051-582-8190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신규 회원가입 업체 소개

(2016. 1. 1. ~ 3. 31.)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에이치아이씨건설 손 현 호	부산 수영구 과포로 4, 2층(망미동) T : 051-759-6678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영지토건 서 용 기	부산 북구 기차로 12, 201-3호 (덕천동, 이수빌딩) T : 051-333-7438 보유업종 : 토 공
 와이케이엔지(주) 윤 영 일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712호 (재송동, 큐비이센텀지식산업센터) T : 051-783-9012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웅두토건 김 회 은	부산 금정구 금샘로 571 (남산동) T : 051-514-6433 보유업종 : 토 공, 석 공 철근·콘크리트
 (주)원덕건설 조 문 환	부산 동래구 금강로 69, 305호 (온천동) T : 051-753-0101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유승건설 이 상 호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3번길 39, 2층(반송동) T : 051-543-7419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
 유진엘앤씨(주) 이 은 태	부산 수영구 구락로 59, 1층(수영동) T : 051-711-4501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윤디자인연구소 강 경 아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42번길 30 (중동) T : 051-731-0926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윤디자인연구소 정 현 영	
 (주)은성이엔씨 김 기 태	부산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55, 2층 207호(명지동) T : 051-201-1412 보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	 (주)인바오 장 호 섭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83번가길 5, 402호(우동) T : 051-731-0404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일산기업 김 진 식	부산 금정구 금단로210번길 9 (남산동) T : 051-518-4700-4 보유업종 : 상·하수도설비	 일성건설(주) 김 규 선	부산 기장군 일광면 문오성길 485-5, 2층 T : 051-727-3111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제이케이건설(주) 박 순 화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4번길 40, 3층(감암동) T : 051-897-6551 보유업종 : 도 장	 (주)제이케이수 장 석 균	부산 금정구 동천로 4, 1층(회동동) T : 051-529-0793 보유업종 : 금속구조물·창호

〈2016. 1. 1. ~ 3. 31.〉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제일건설산업 송 진 호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역길 75, 4호(세홍상사) T : 051-721-4500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제일시스템비계 김 성 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18, 4층(법전동, 양지빌딩) T : 010-6552-8271 보유업종 : 비계·구조물해체
 (주)중앙건설 하 선 주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719호(부전동, 유원골든타워O/T) T : 051-819-1920 보유업종 : 미장·방수·조적	 주광건축(주) 문 윤 수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91, 2층 (연산동) T : 051-865-6922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지엘에이 조 귀 자	부산 동래구 총렬대로428번가길 19, 208호(안락동, 남흥상가) T : 070-8237-2483 보유업종 : 조경시설물설치	 (주)지윤산업개발 권 상 각	부산 기장군 장안읍 협동로 108 T : 051-208-3008 보유업종 : 도 장 금속구조물·창호
 태광종합건설(주) 정 광 수	부산 동래구 미남로 31, 3층(사직동) T : 051-931-7617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주)태은 남 성 규	부산 수영구 수미로14번길 35, 상가동101호(수영동, 수영강동원로알뜰크) T : 051-751-0600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태은건설 양 현 숙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42, 2층 T : 051-724-7442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태인산업개발 황 진 봉 (주)태인산업개발 최 환 호	부산 중구 대청로 121-1, 102동 503호 (대청동1가, 코모도에스테이트) T : 051-465-5851 보유업종 : 토 공 철근·콘크리트
 (주)프로젝트도 김 복 조	부산 동래구 수안로 38 (수안동) T : 051-245-5525 보유업종 : 실내건축	 (주)한림기업 양 재 진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4로 84 T : 051-782-6923 보유업종 : 승강기설치
 (주)한성씨앤디 손 대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84번길 13, 2층(재송동) T : 051-781-3016 보유업종 : 토 공 비계·구조물해체	 (주)현대하이텍 박 미 정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57,씨004호 (부곡동, 부산가톨릭대학교 창업보육센터) T : 070-4422-0663 보유업종 : 도 장
 호경건설(주) 정 창 규	부산 강서구 화전산단5로 22, 비동 1층(화전동) T : 051-832-5236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흥덕산업개발(주) 나 광 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277번길 21(3층) T : 051-724-0485 보유업종 : 철근·콘크리트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6. 1. 1 ~ 3. 31)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보화건설(주)(대표 : 박문옥, 서울)	금후건설(주)(대표 : 박기택, 경남)
삼일건설(주)(대표 : 이근선, 경기)	(주)보흥건설(대표 : 이진옥, 경남)
수림조경(대표 : 윤미영, 경남)	(주)부림토건(대표 : 강민규, 충남)
(주)시온조경(대표 : 서정훈, 경기)	(주)아인디자인(대표 : 반종규, 경남)
시티물산(주)(대표 : 김진식, 인천)	이도토건(주)(대표 : 서영순, 경남)
창민토건(주)(대표 : 김은주, 경남)	이원건설(주)(대표 : 박종윤, 충남)
(주)청운건설디앤아이(대표 : 이덕진, 경기)	(주)인동건설(대표 : 장창근, 충남)
(주)한신디앤씨(대표 : 김훈, 경남)	(주)태화(대표 : 김용훈, 경북)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6. 3. 31 기준)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지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25	61	남구	91	132	북구	70	97
동구	60	118	금정구	209	318	사상구	106	137
서구	29	35	연제구	130	198	강서구	140	190
사하구	70	90	해운대구	190	269	기장군	181	285
영도구	23	34	수영구	102	146	합계	1,768	2,600
동래구	169	224	부산진구	173	266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3월 1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소회의실에서 전문건설업체 대표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건설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LH가 '계약·설계·심사·시공' 분야에서 전문건설업자가 경험한 불공정 사례를 직접 청취하고 공사의 지침 개정 등에 반영키로 했으며,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이 장기간 소요되고 물품 등의 구매강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LH에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회 2016년 2/4분기 주요일정 안내

※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주요행사명
2016. 4. 22(금)	전건회 4월 월례회
2016. 5. 31(화)	실적신고 재무제표 제출 마감일(개인업체)
2016. 6. 11(토)	부산전문건설인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부산전문건설인 가족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부산시회에서는 새로운 건설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선진 통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 ① 노무제공자제도 대체법안 도입!
- ② 건설규제를 물에 던져 새롭게 설계하자!
- ③ 공유문화를 확산하자!
- ④ 새로운 건설문화 창조!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 유명인사와 전문건설인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인 "아름다운 동행" 행사를 갖고자하오니 회원사 대표, 임·직원 가족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당초 2016.5.20(금)에서 2016.6.11(토)로 행사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0:00~15:00 / 사직아시아드 보조경기장)

건설용어 바로쓰기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개념이 복잡한 전문 건설 용어를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계약 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는 건설 용어를 오해할 경우에는 그릇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현장과 계약 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로써 전문건설인이 현장에서 겪게 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진 건설문화 구축에 앞장서고자 한다. 또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인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용어	정의
건설산업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건설업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
건설용역업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業)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종합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
전문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
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
건설산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
시공책임형건설사업관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
발주자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도급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함
하수급인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
건설기술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

>>> 제증명 발급 종류 및 내용

구 분	제증명 서류	내용 설명
입찰관련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업종별/전문건설업체의 경영상태, 시공여유율(시공능력평가액, 실질자본금, 순유동자산) 시공경험(3년간 기성액)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설공사 실적확인서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연도별 최근 5년간 건설공사 기성실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종 전체)
	건설공사 실적확인서(최근 5년간-업종별)	전문건설업체의 업종별/연도별 최근 5년간 건설공사 기성실적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업종별 분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전문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서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회원 증명 확인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정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회원만 가능함
	회비 완납 증명서	대한전문건설협회 회비 완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회원만 가능함
실적관련	전문건설공사 실적확인원(총괄표, 내역표 포함)	전문건설업체의 해당년도 업종별 기성액 합계 및 원·하도급 공사건수 등이 표시된 실적총괄표와 업종별 세부적인 공사내역(업종, 공사명, 발주자명, 도급종류, 계약/착공/준공연월일, 당년도 계약액/기성액 등)이 기재된 공사실적내역표가 기재된 서류가 일체로 발급됨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단일)	전문건설업체의 해당년도 업종별 실적공사 중에서 선택된 단일 공사에 대해 세부적인 공사내역(업종, 공사명, 발주자명, 도급종류, 계약/착공/준공연월일, 당년도 계약액/기성액 등)이 기재된 서류
	건설공사실적 확인서(선택)	전문건설업체의 해당년도 업종별 실적공사 중에서 선택된 공사들에 대해 세부적인 공사내역(업종, 공사명, 발주자명, 도급종류, 계약/착공/준공연월일, 당년도 계약액/기성액 등)이 기재된 서류
시공능력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평가요소 4개 항목]	시공능력평가액=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시공능력 평가확인서 [상세내용 표시]	해당년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산정기준에 따른 세부항목별 산정금액이 상세하게 기재된 서류로 시공능력평가액의 산정방법을 알 수 있음
	시공능력 순위확인서	전문건설업체의 해당년도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지역순위, 전국순위를 알 수 있는 서류

>>> 제증명 발급 방법

- 직접발급 : 우리사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음.
- 인터넷발급 : 인터넷 제증명 발급전용 홈페이지(<http://minwon.kosca.or.kr> 및 <http://kosca21.or.kr>)에서 '인터넷 제증명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발급받음.

법인인증서 발급 ⇒ 증명발급시스템 인증서 등록 ⇒ 인증서 로그인 ⇒ 증명서 발급신청 ⇒ 선택증명서 확인 및 결제 ⇒ 증명서 출력

※ 수수료 : 제증명서 1부당 3,000원.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진단 및 대책

건설현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재해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사에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사례별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관비계를 해체하던 중 구조물 단부에서 추락

공사명	아울렛 신축	발생일시	2013.10.29(화) 14:20분경
재해형태	추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2층, 건물 1개동

재해개요

본관동 지상1층 건물 외부에 면한 에스컬레이터 진출입부에 설치된 강관 비계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동료작업자가 상부에서 해체하여 내려주는 비계 부재를 바닥에서 받아 정리하던 중 구조물 바닥 단부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지하1층 지면 바닥으로 추락(h=4.8m)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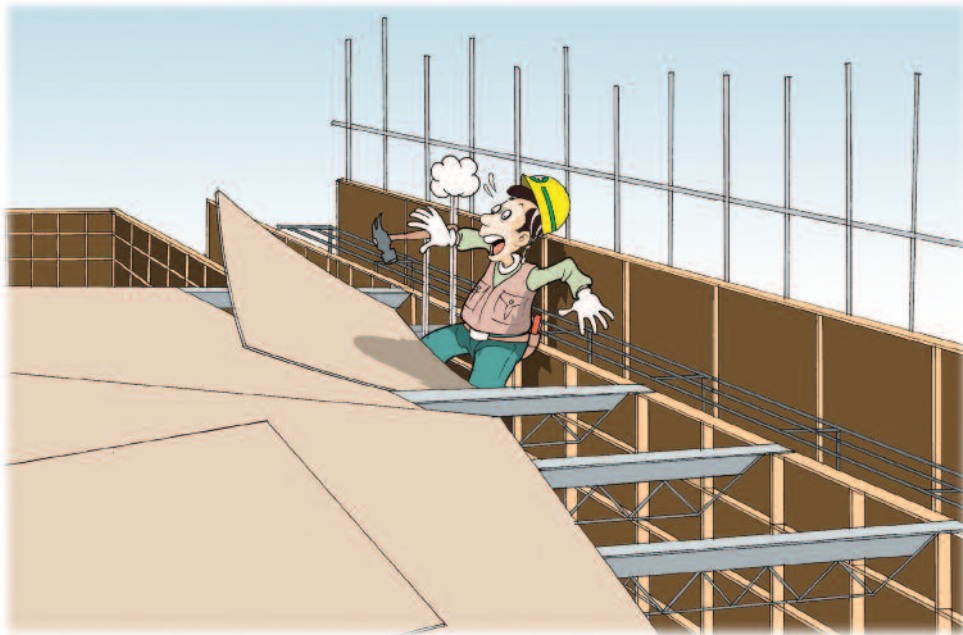
-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해 구조물 단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
-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가 비계 해체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직무를 수행
 - ①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 ②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상태를 감시하는 일
 - ③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바닥 합판 거푸집 설치작업중 형틀공 1명 추락 (H≒5.75m)

공사명	○○학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3.10.05(토) 10:50경
재해형태	추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4~5층, 2개동

재해개요
 피해자(54세, 남, 형틀공)가 지상4층 체육관 무대구간 슬래브 바닥 합판거푸집 조립작업중 호리빔(Hory-Beam) 위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슬래브 바닥 합판거푸집 단부를 발로 밟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3층 콘크리트 바닥면으로 추락(H≒5.75m) 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작업자들이 발견하고 인근 병원에 후송 하였으나 수술 치료중 2013. 10. 10(목) 09:00경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철저

- 바닥 슬래브 형틀조립 작업시 개구부로서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개구부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고정 설치하거나 개구부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부득이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추락 위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 등)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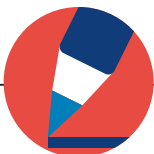
가산조경개발
조성민 대표

코스카레터를 보면 오래 만나온 지인을 가끔씩 반갑게 만나 는 듯합니다. 건설현장 이곳저곳을 바쁘게 다니느라 만나 기 힘든 전문건설인들의 소식도 접하고, 놓치기 쉬운 법령개정사 항과 제도들도 있어서 요긴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부산시회의 각종 대외 활동과 회원사들의 사회 봉사활동 들도 눈여겨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회원사 모두의 경영과 실무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정보로 더욱 더 알찬 내용과 반가운 소식들이 가득한 코스카레터를 기대합니다.



(주)비엠
배미애 대표이사

건설산업기본법은 책상에 있지만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코스 카레터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집필되어 바쁜 일상에서 쉽게 정보를 전달 받 을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법 개정이라든지 건설관련 유권해 석 및 판례는 실질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어 무척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자퀴즈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주)다용건설 이은경 사원
- 삼양개발(주) 문용배 이사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4억 원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Q 건설업의 경우 업종별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상시 충족(단, 기술능력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50일 이내로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신규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 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일정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자본금 미달에 따른 허용기간은 며칠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 (기간: 2016. 5. 31.(화)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www.ftc.go.kr

“하도급 ·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으로도 제보하세요!

익명제보

- ▶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익명제보센터에 제보하세요.**

• www.ftc.go.kr → 민원참여 → 하도급 · 유통 익명제보센터 에 제보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사단계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추정되지 않도록 조사시기, 조사범위를 신속적으로 조정합니다.

- ※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보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중 △하도급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실명으로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피제보자에게 이미 제보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타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제보센터 문의 : 044-200-4593

실명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 ▶ 하도급 ·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고 싶으실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온라인 신고 : 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 서면 신고 : 원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

연락기관	담당지역 및 업무	연락처
종합상담실	하도급법 질의 및 진화상담	044-200-4010
서울사무소 제조회도급과 · 건설하도급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02-2110-6161~7 02-2110-6144~9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460-1041~5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062-975-6841~4
대전사무소 하도급과	대전, 충남북, 세종지역	042-481-8018~20
대구사무소 하도급과	대구, 경북지역	053-230-6341~4

- ▶ 하도급 · 유통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 www.kofair.or.kr)
-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협의회(02-2124-3132, www.kbiz.or.kr)
- 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02-549-2105~6)
- 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정책부(02-3284-1088)



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